

## 제2장 고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에는 지배계급이 출현하여 국가가 형성되면서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 우리 지방에서도 소국이 성립되었다. 이 소국들은 점차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주변 일대를 지배하였다. 이어서 철기가 널리 보급되어, 농업생산이 증대되어 사회변화가 촉진되면서 문화생활이 다양해져 갔다. 이러한 토대 위에 각지에 여러 소국이 형성되어 성장하면서 삼한이 이루어졌다. 삼한 중에서 진한은 12소국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중 사로국이 크게 성장하여 연맹체를 이루어 중앙집권국가인 신라로 발전하면서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였다. 이때 우리 고장의 소국들은 신라에 통합되어 갔다.

### 제1절 소국의 형성과 발전

#### 1. 진한의 소국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진(辰)사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진은 기원전 2세기 경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진사회에는 고조선 사회의 변동에 따라 대거 남하해 오는 유·이민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어 토착문화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여 삼한(三韓)이 나타나게 되었다. 삼한은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의 연맹체들을 뜻하며,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경까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있던 정치 집단들을 말한다. 삼한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3세기 후반 진(晉)의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며, 여기에는 한(漢)이후 3세기 전반까지의 한반도의 사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이전 한조(韓條)에는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 모두 합하여 78국의 나라이름(國名)이 실려 있다. 여기에 나오는 진한의 12소국(小國)중 근기국(勤耆國)은 우리 고장에 있었다.

삼한의 소국들은 청동기 문화단계 이래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 성립되었던 토착사회가 성장 발전한 것으로 삼한의 성립 시기는 삼한을 구성하는 소국이 성립되는 시기와 지역별로 소국들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마한·진한·변한으로 분립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말엽부터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철기 문화의 유입으로 철(鐵)자원 개발과 철기(鐵器)의 제작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서·북한 지역의 정치적 변동으로 상당수의 유·이민들이 중부 이남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로 인해 청동기의 제작과 관리 및 교역의 중심지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진국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철자원이 풍부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적 중심점이 형성되면서 중부 이남지역 토착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정치·문화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에 따라 시간적인 선후의 차이가 있고 소국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 역시 다양하였을 것이나 70여 개의 개별 정치집단으로서 삼한 소국이 성립된 것은 한반도 전체의 정치·문화적 변동 과정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현상을 고고학적으로 볼 때 경상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에서부터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다량의 철기를 부장하는 토광목관묘(土壙木棺墓) 유적들이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새로운 정치권력이 형성되어 계층분화가 이루어진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주, 대구, 김해 등지에서 집중 출토되는 이 시기의 금속제 유물들은 이전 단계와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적 변화 내용을 반영하는 자료들로 볼 수 있다.

삼한 중에서 진한은 대구·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진한은 12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큰 것은 4천~5천 호(戶) 작은 것은 6백~7백 호로 모두 4만~5만 호였다. 12소국은 기저국·불사국·근기국·난미리동국·염해국·군미국·여담국·호로국·주선국(마연국)·사로국·우유국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 고장에 있었던 근기국(勤耆國)은 훗날 신라에 병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12소국 이외에도 <동이전>에는 별도의 작은 여러 읍이 있으며, 12소국 이외의 국명도 나타나고 있다.

## 2. 근기국, 다벌국, 초팔국의 성립과 발전

삼한 소국의 성립 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나 백제·신라·가야 각국의 건국설화를 분석하거나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여 소국 형성의 유형을 일부 추론할 수 있다. 진한의 맹주격인 사로국의 형성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원전 57년 6촌(村)의 촌장들이 모여 혁거세(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하고, 국호를 서나벌(徐那伐)이라 하였다는 건국설화가 실려 있다.

변진의 구야국(狗倂國)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기원후 42년 9간(干) 즉 9명의 족장들이 모여 수로(首露)를 왕으로 추대하고 가락국을 세웠다는 건국설화가 전해진다. 문헌 기록에 나오는 사로국과 구야국의 건국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라는 대체적인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같은 연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고학 자료상의 새로운 변화 추세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고고학계에서는 경남의 창군 다호리 유적과 경주 조양동 38호분을 기준으로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부터 기원후 1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를 원삼국시대(김해문화·삼한시대)의 첫 단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진한의 형산강 하류·영일만 유역에서는 별도의 독립적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소국이 근기국이였다. 근기국 주민의 형성은 토착민과 유·이민 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냉천과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구릉지와 평야에 토착세력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유·이민 세력이 주로 해안을 통하여 이주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세력들과 토착민들이 어우러져 국(國)을 형성해 나간 것이다.

근기국은 오늘날 포항시 인덕동·호동·오천읍·대송면·동해면 및 인근지역에 형성된 읍·락들을 지배하면서 소국(小國)을 이루어 이 지방의 중심세력으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근기국 치소의 중심지는 물이 나는 계곡을 둔 높은 구릉에 축조된 고현성터(古懸城)가 있는 고현마을(지금의 원동)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문헌상으로 영일읍지(迎日邑誌)에 근거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호동 마을 유적을 들 수 있으며, 이 유적은 높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여 거주와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고지성 마을 유적이다. 주위보다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은 위치상, 소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흥해읍 남·북미질부성과 옥성리 고분군, 청하면 덕천리 유적 등에서 당시의 생활 유적과 분묘유적들이 확인된다.

근기국은 신라의 건국(B.C 57) 이전인 기원전 2세기 초에서 1세기 말경, 영일만 일대에 소국을 형성하고 군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는 흥해 지역의 다벌국(多伐國, 흥해로 추정), 기계 지역의 초팔국(草八國, 기계로 추정) 등 《삼국지 위지》에 진한 12국으로 표현되지 않은 소국들도 성장하고 있었다.

신라는 파사이사금대에 들어와서 근기국, 다벌국, 초팔국이 신라에 병합되고, 이 지역은 신라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3. 근기국 사회

소국들이 성립된 것은 시간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변화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국읍(國邑)에는 주사(主師)가 있으나 읍락(邑落)들이 잡거(雜居)하여 서로 잘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여 삼한의 각국은 국읍과 다수의 읍락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國)은 “지배적인 읍(邑)”을 뜻하므로 국읍이란 다수의 읍락들 중에서도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는 대읍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삼한의 각 국은 대·소의 읍락들로 구성된 정치집단이라 하겠다. 읍락은 소국 형성 이전부터 각지에 성립되어 있었던 개별적인 정치집단들로 서라벌 6촌 설화들을 통해 볼 때, 이들은 청동기 문화 단계의 족적(族籍)결합과 정치활동에 바탕을 둔 집단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삼한에서 각 소국이 성립된 것은 이러한 소규모 집단들이 철기문화가 확산되고 유·이민이 이동해 오면서 일어나는 정치·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연(地緣)에 바탕을 둔 보다 확대된 정치집단으로 총합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근기국도 이런 발전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근기국의 구성단위는 읍락들이었다. 이들의 상하관계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집단을 국읍(國邑)·읍락(邑落)·소별읍(小別邑) 등으로 구별한 것에서 어느 정도 들어난다. 국읍이란 소국의 중심이 되는 읍락을 뜻하며 규모가 크거나 일반 읍락과 구별되는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근기국이란 여러 읍락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큰 규모의 읍락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소국인 것이다. 진한 지역에서는 <동이전>에 기록된 12국 이외에도 소규모의 독립적인 정치집단이 많이 있었다. 국읍과 소별읍 등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사회적 구성이나 조직 원리면에서는 일반 읍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읍락은 대규모 주민 거주지인 읍(邑)과 촌락의 뜻인 락(落)의 복합어라는 해석도 할 수 있고, 단순히 일반 취락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일반 촌락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읍락은 자연 촌락과는 달리 정치·경제적으로 통일된 기능을 발휘하던 개별집단이었다. 근기국의 읍·락들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 건국설화에 의하면 사로국을 구성한 6촌에는 각 촌별로 시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읍락의 구성원은 동일한 시조의 후손이라는 의제적인 혈연의식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읍락의 통치자는 족장의 성격이 강하고, 독립된 통치자를 세우고 있었다. 이를 옥저(沃沮)와 동예(東濊)에서는 삼로(三老), 삼한에서는 신지, 견지, 읍차(邑借) 등으로 불렀다. 읍락은 경제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이 보장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동예에서 읍락이 서로 영역을 침범할 경우 사람·소·말 등으로 변상했다고 하는 책화(責禍)의 풍습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4. 근기국의 발전과 교류

근기국은 진한에 소속된 12개 소국 중의 하나이다. 당시 진한 12국이라는 것은 진한 사회의 총 실수가 아니며, 이 밖에도 무수한 별읍(別邑), 소국읍(小國邑)이 있었다. 진한의 소국 중에 큰 것은 4천~5천호(戶) 작은 것은 6백~7백호였다고 하여 근기국 사회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근기국은 추정 위치상 형산강의 하구, 영일만을 접하고 있어 해로·수로·육로 교통이 편한 곳이었다. 현재 근기국의 근거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있는 고현성이라는 성터가 남아있어, 당시 근기국 통치의 근거지(국읍)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고현성 유적을 실측한 결과 흙으로 성벽을 쌓은 토성이었다. 토성의 높이는 2m~1.5m, 성내에서는 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벽의 길이는 남벽이 250m, 서벽이 525m, 북벽이 250m였다. 높은 능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쌓았으며, 관망과 수비의 여건을 갖춘 높은 곳에 자리 잡아 성안의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초기 성곽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근기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주의 사로국, 추정을 하고 있는 다벌국(흥해), 초팔국(기계) 등과 육로·수로를 이용하여 교류를 하였을 것이다. 해안과 해로를 이용하여 북쪽의 예(溟), 남쪽의 변한 소국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바다 건너 왜와의 교류도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예와는 교류관계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설화들이 지금까지 이 지방에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지에 얽힌 이야기나 흥해읍 대련리에 전해오는 예국관계의 설화 등이 그것이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 《日月鄉誌》, 1962, 《포항시사》, 1999.
- 《영일만 주변 고인돌 문화연구》, 영일문화원, 1994.
- 포항시,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동대해문화연구소, 1997.
-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신형식, 《三國史記研究》, 일조각, 1981.
- 《韓國史論》1. 古代, 국사편찬위원회, 1986.
- 윤내현, 《韓國 古代史新論》, 일지사, 1988.

## 제2절 신라시대의 이 고장

### 1. 신라 성장과 소국의 병합

사로국이 진한 12국 연맹의 맹주국으로 성장을 하였으나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각 소국들을 복속시키거나 또는 정치문제에 직접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각 소국들 사이에는 일정한 국경이 정해져 있어 서로 성(城)·책(冊)을 쌓아 침입을 경계하였다. 현재도 당시에 쌓았다고 전해지는 토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로국은 이 기간에 진한소국들의 대외무역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한 소국들은 낙동강을 이용하여 남해로 진출하거나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바다를 이용, 마한·예·중국의 군현(郡縣)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에는 변한 소국들이 자리 잡고 있어, 진한 소국들의 낙동강 이용을 방해하였다고 본다.

특히 낙동강 하구에는 초기 변한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가 자리 잡고 낙랑·마한·예·왜(倭)·진한 등과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변한 세력은 큰 장애물이 되어, 진한 소국들이 대외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해로 이용이 중요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쪽과 서쪽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경주에 자리 잡고 있던 사로국이 교통의 요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로국 역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리적 요건의 하나가 경주에서 가까운 동해지역의 근기국이었으며, 그 사로국 역할의 일익을 이 고장 주민들이 담당하였을 것이다.

경주지방의 사로국에서 발전한 신라는 박혁거세에 의해 건국되었다(BC.57). 초기에는 박·석·김의 세 부족이 연맹하여 왕에 해당하는 이사금을 선출하였는데, 곧 이어 6부족 연맹체로 발전하였다.

사로국은 제5대 파사이사금(A.D80~112)에 이르면 경주 세력으로는 처음으로 기병(騎兵)을 사용하여 “다벌국(흥해로 추정)과 굴아화촌(울산)을 취하여 하곡현(河曲縣)과 하서현(河西懸)을 두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신라가 안강·영일·울산 등 경주의 동남편으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한 것은 2세기경 파사왕대의 일로 생각된다.

신라는 102년에 음즙벌국(안강)을 먼저 병합하였고 이어 굴아화촌(울산)을 공략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2세기에 들어와 소국들이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영일만 유역의 소국들도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 나오는 소국들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병도(李丙燾)씨의 설(說)을 따르면 비지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다벌국을 대구(大丘)로 초팔국은 초계(草溪)로 비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팔국을 낙동강 서쪽의 초계로 볼 경우, 당시 사로국이 낙동강 건너까지 힘이 미쳐 초팔국을 병합할 수 있었을지 의문시된다.

한편 천관우(千寬宇)씨는 비지국을 안강(安康)으로, 다벌국을 흥해(興海)로 초팔국을 기계(紀溪)로 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모두 경주에서 80리(里) 이내의 근거리에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사왕대를 성장기로 보았을 때, 천관우씨의 설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사로국이 경주를 중심세력으로 하고 오늘날 포항지역의 근기국·다벌국·초팔국 및 울산의 굴아화촌 등을 병합하여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우리 고장의 소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 2. 왜구의 침입과 격퇴

포항지역은 본격적인 농경생활이 이루어지는 청동기 이래 소국들이 성립되어 초기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농경 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안이라는 점과 신라의 서울인 금성으로 향하는 가까운 길목이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일찍부터 왜구(倭寇)의 노략질이 심하였다.

### 1) 왜구의 침략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나타나는 왜구의 동해안 침입은 수십 회에 이른다. 혁거세왕 8년부터 시작되는 침입은 점차 많아지다가 5세기 실성왕대에 3회, 눌지왕대에 4회, 자비왕대에 4회, 소지왕대에 4회에 이를 정도로 심해졌다. 이들의 침입은 약탈, 방화, 주민살상, 포로 등으로 이 지역민의 피해가 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왕경이 위협받는 국방상 중요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왜적 침입의 영향으로 이 지방 사람들은 자주 전란에 휩싸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구들의 약탈과 방화로 마을과 건물이 소실되고 생활이 어려워졌을 것이며 수천 명이 왜구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는 등 피해가 극심하였다.

왜구들의 침입 기록

순	시 기	내 용
1	혁거세왕 8년(BC.50년)	군사를 거느리고 변경 침입-격퇴
2	남해왕 11년(14년)	병선 수척으로 동해안 침입. 민가 약탈-6부군사 출동 격퇴
3	탈해왕 17년(73년)	목출도에 침입-각간 우오 적을 치다 전사
4	지마왕 10년(121년)	동해변으로 침입-왕이 군사를 일으켜-적이 패주
5	조분왕 3년(231년)	4월-동해로부터 침입-금성 포위 공격-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격퇴-1천병 참살
6	조분왕 4년(232년)	5월-침입-동해에 주둔-7월 이찬 우노 사도서 왜인격퇴-왕군 추격-퇴주
7	유례왕 4년(287년)	4월-동해안 침입-살인, 방화, 분탕-1천여 백성 사로잡아 감
8	유례왕 9년(291년)	6월-청하현에 침입-방화, 약탈 자행-왕사가 격퇴
9	유례왕 11년(294년)	영일현에 침입-약탈 자행-왕사가 격퇴
10	내물왕 9년(364년)	4월-동해안(영일현)으로 침입 경주포위-왕군이 격퇴(경주부현-적을 포위 격살, 포로)
11	내물왕 38년(393년)	5월-침입-금성 포위 5일간 전투-퇴주-신광 독산에서 격파-적 패주
12	실성왕 4년(405년)	4월-동해에 침입-명활성으로 진격중-왕이 중앙군을 끌고 출정-신광 독산에서 격파
13	실성왕 6년(407년)	3월-동변 침입-남·여 백성 수백 명 사로잡아 도주
14	실성왕 14년(415년)	7월-동변 침입-8월 풍도에서 왜군과 싸워 이김
15	눌지왕 15년(431년)	4월-동변에서 침입-명활산성을 포위하였으나-불리하자 패주
16	눌지왕 24년(440년)	5월-독산으로 침입하여 왕사가 격퇴
		6월-동변으로 침입-왕성 진격 중-왕사가 격퇴
17	눌지왕 28년(444년)	4월-동변에서 왕도로 침입 포위-독산에서 격파-수백 참살
18	자비왕 5년(462년)	활개성으로 침입-백성 1천을 사로 잡아감
19	자비왕 6년(463년)	2월-왜적이 삼량성으로 침입-격퇴
20	자비왕 19년(476년)	6월-왜적이 동쪽해변으로 침입-왕사가 격퇴-200 참살
21	자비왕 20년(477년)	왜적이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왕도에침입-왕사가 격퇴
22	소지왕 4년(482년)	2월-왜적이 동변으로 침입-금성 진격중-왕군이 격퇴
23	소지왕 15년(493년)	7월-왜적을 방지하기 위해, 임정현, 장기현에 2진영(鎭營)을 설치
24	소지왕 19년(497년)	4월-왜적이 동변으로 침입-왕사가 격퇴
25	소지왕 22년(500년)	3월-왜적이 동변으로 침입-왕사가 격퇴

## 2) 국운이 걸렸던 ‘독산’ 전투

왜구의 침입로에는 전략상 천혜의 조건을 갖춘 신광 독산이 있었다. 독산을 중심으로 신광 토성 등은 신라의 동북방 방어선이었는데, 이 부근에서 수차 왜적과 신라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신라 제17대 내물왕 38년(393) 5월에 왜인들이 쳐들어와서 금성을 포위하고 5일 동안 공격하였다. 이에 장병들은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말하기를 “지금 적들은 배를 타고 깊이 사지(死地)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 예봉을 가히 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곧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니, 적들은 아무런 공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닫고 도망가므로 왕은 먼저 날랜 기병(騎兵) 2백 명을 파견하여 적의 퇴로를 끊고, 뒤이어 보병(步兵) 1천 명을 보내어 독산(현, 신광면 소재)까지 추격하여 이를 4만의 군사로 포위하고 크게 격파하였는데, 이 때 적을 참획한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제18대 실성왕 4년(405) 4월에 왜병이 명활성(현, 경주시 보문호 서편)으로 쳐들어오다가 패하여 도망가므로 왕은 친히 기병을 거느리고 독산 남쪽으로 나가 요충(要衝)에 군사를 숨겨두고 있다가 다시 싸워 적을 격파하고, 300여 명을 참획하였다.

제19대 눌지왕 28년(444), 4월에 왜병이 쳐들어 와서 금성을 포위하고 10일 동안 있다가 양식이 다하여 퇴각하였다. 이때 왕은 군사를 내어 적을 추격하려 하였으나 군신들이 “병가(兵家)에 말하기를 궁한 도둑은 이를 추격하지 말라 하였사오니, 대왕께서는 이를 놓아 보내는 것이 좋은 듯하나이다” 하였다. 그러나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친히 기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적을 쫓아가서 독산 동쪽에서 싸웠으나 적에게 패하여 장병들을 절반이나 잃었으며, 왕은 창황히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니 적들은 왕을 겹겹으로 포위하여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별할 수 없게 되니, 적들은 이는 “하늘의 도움이 있는 것이다” 하고 곧 군사를 거둬 돌아갔다.

제20대 자비왕 2년(459) 4월에 왜인들이 병선 100여 척으로 침입하여 동쪽 변방을 습격하고 쳐들어와서 월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4면에서 시석(矢石)이 빗발같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왕은 군사들을 정비하여 가지고 성을 잘 수비하였으므로 적들은 곧 도망하려 하였다. 이때 왕은 군사를 내어 적을 격파하고 북으로 해구(海口)(현, 포항의 흥해, 청하 쪽으로 추정)까지 추격하여 이를 격파하니 적들은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반수가 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독산’의 전투가 매우 중요한 전투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 3) 전란의 극복과 영향

독산에서의 승전은 신라의 왕경을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국방상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과 격퇴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우선 이 지역이 왜구의 약탈과 방화 등으로 황폐화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으므로 여기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이 지역의 승전은 이 지방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 왕실에서는 이러한 피해들을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책으로 요충지에 성(城)을 쌓았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개혁의 군주였던 지증왕 5년(504) 9월에 미실성(미질부성)을 비롯한 12성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 3. 신라의 국방강화와 이 고장의 축성

신라는 5~6세기에 이르러 국방강화책을 실시하였다. 중요 국경지역과 왜구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성을 쌓아 방비를 하였다. 특히 서라벌로 침공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안에 산성을 쌓고 이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전방과 후방의 군사거점으로 산성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지증왕 5년(504) 9월, 미실성(彌實城, 미질부성)과 함께 12성(城)을 쌓았다. 이때 우리고장에 쌓았던 성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미실성은 현재 포항시 흥해읍 남성 3리 지산(池山)에 있는 남미질부성과 흥안 2리에 있는 북미질부성을 총칭한 것으로 본다.

오천의 고현성, 장기성, 오천읍 갈평리와 진전리에 연하여 장기면 경계에 있는 만리산성, 축성법으로 보아 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신광토성, 기계면 문성리의 성산성 등은 신라의 동변을 지키는 국방상 요충지에 축성되어 왕경의 보호, 외적의 격퇴, 백성 보호 등의 역할을 하였다.

### 1)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

이 성은 행정 구역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와 중성리, 망천리의 3개 리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경 129° 20' 00"에서 129° 22' 30"이며, 위도로는 북위 36° 07' 30"의 범위에 해당된다. 성이 있는 지역은 흥해평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도음산의 북쪽자락이 뺏어 내려온 끝머리로 남쪽은 자연적인 급경사를 이용하고 북쪽의 동서쪽은 산의 능선을 이용하여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 성을 쌓은 곳은 낮은

구릉으로 서쪽과 동쪽이 높고 가운데가 낮으므로 남쪽과 북쪽에서 보면, 마치 말안장 모양의 굴곡을 이루고 있다. 이 성의 동쪽에는 북미질부성이 있고, 북쪽에는 청하면 고현리, 서쪽에는 신광의 독산과 토성, 서쪽 연결부에는 옥성리 고분군, 남쪽에는 초곡리 고분군, 성곡리 고인돌군과 학천리 고분군이 있는 중심지이며 군사적 요충지이다.

남미질부성은 망창산성(望昌山城)이라 부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남·북미질부성(南·彌秩夫城)의 처음 축성시기에 대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유구(遺構) 및 출토유물로 상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상으로는 포항시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미질부(彌秩夫)’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어 미질부성이 축조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481) 3일 조(條)에 “고구려(高句麗)와 말갈(靺鞨)이 북쪽 변경에 호명(胡明) 등 7성을 빼앗고, 또 다시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가는 것을 추격하여 니하(강릉) 서쪽에서 깨뜨리고 천여 급을 참수하였다.”고 하여 고구려와 말갈이 호명 등 7성을 함락하고, 미질부로 진군하는 것을 신라군이 백제와 가야의 원군과 함께 니하의 서쪽에서 물리치고 있음을 수록하고 있다.

자비마립간 11년 9월조에는 “하슬라(삼척) 사람들로써 15세 이상 되는 자를 징발하여 니하에 성을 쌓았다.”고 하여 미질부와 관련하여 고구려, 말갈군을 물리친 바 있었던 니하에 자비왕 11년(468)에 성을 쌓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축성 사실은 삼국사기의 전투 기사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 전투가 대체로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지왕 3년(481) 고구려·말갈군이 호명 등 7성을 함락시키고 미질부로 진군하고 있다고 기록하여 이 시기에 이미 미질부성이 축조되어 있었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망창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설화에 의하면 흥해지역에는 삼한시대부터 사람이 많이 살아,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남미질국(南彌秩國), 북미질국(北彌秩國)이라는 소국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의 10만 군사가 북천(北川)을 경계로 “진두들”에서 싸웠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성(城)을 가진 군대들의 전투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남미질부성은 1993년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벽을 실측한 것을 보면, 서북쪽의 직선거리 256m나 되는 범위는 도시개발에 의한 도로 개설과 택지조성으로 성벽이 남아있지 않았고, 성내의 중앙부에도 많은 부분이 변형이 되어 있어서 성의 온전한 모습은 알 수 없다. 대략 남아있는 상태를 가지고 본 모습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지표조사 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성벽은 서쪽과 남서쪽에 460m가 현저히 남아있고, 나머지 확인이 가능한 전체의 성벽은, 1,576m쯤 이고, 서북부의 단절 유실된 256m를 합하여 대략 1,832m정도의 길이로 둘러싸인 것이었다고 여

겨진다. 그리고 현재도 연못 1곳과 우물 1곳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옛 기록과 일치된다. 이 성은 외관으로 토축(土築)의 구릉(丘陵)을 이용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토성이다. 토축이라 하여도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무너진 성벽은 토루(土壘)의 벽 가운데 석축(石築)이 있는 곳도 있었다. 이 조사에서 남미질부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성벽의 외관(外觀)에 따라 구분되었다. 북벽, 동벽, 남벽의 동반부(東半部)는 계단식의 구조를 보이고, 서벽과 남벽의 서반부(西半部)에서는 성벽의 상단부가 내부의 단면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성벽구조 가운데는 몇 군데에 혀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 성의 여러 부분에서 냇가 돌이 발견되고 있는데, 냇가 돌은 이 성안이나 가까운 곳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라 꽤 떨어진 곳에서 날라 온 것이라 여겨진다. 냇가돌은 크기가 사람머리 만한 것에서 주먹크기까지 대·중·소로 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이 돌들은 투척용 무기로써 외적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벽을 통과하여 내부와 외부로 연결되는 5개의 문터가 관찰되었다.

남미질부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기와류, 토기류, 자기류, 금속기류 등으로 대다수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의 유물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와류는 경주지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 가는 사선문 계통의 암수기와가 수습되어 이 성(城)의 기록상의 축조연대와 관련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남쪽 능선에 있는 고분들은 조성연대와 수를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의 세력가들의 무덤인 것 같으며 신라토기와 금제 장식품도 다량 출토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 이 성의 축조시기를 알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2) 북미질부성(北彌秩夫城)

북미질부성은 포함시 북구 흥해읍 흥안 2리에 있으며 일명 조봉대(鈞峯台)라고도 부른다. 북미질부성은 남미질부성에서 동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다. 서남쪽으로 곡강천이 둘러싼 ‘연당뜸’의 산정 능선을 따라 축조된 토석성(土石城)으로 둘레는 약 500m 정도이며, 성내에는 많은 신라 토기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성은 곡강이 굽이쳐 흐르다가 암벽을 깎아 500m의 절벽을 이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쌓은 성으로서 신라의 동북방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였던 곳이다. 기록상 성의 둘레는 5,500척(尺)이고, 성내에서는 1곳의 못과 3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남미질부성과 북미질부성 두 토성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가 망천평야이며 이 평야를 가로질러 곡강이 흘러가는데 북쪽의 마복산에서 비롯된 물줄기가 남으로는 신광을 지나 동으로 꺾이면서 넓은 평야를 이루고 동해로 들어간다. 이 곡강의 하류인 칠포리 곤륜산 기슭에는 근년에 들어와서

다수의 고인돌과 바위그림이 발견되어 이른 시기부터 청동기시대 생활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곡강이 이루어 놓은 비옥한 평야는 선사시대부터 농업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북미질부성은 남미질부성과 같은 시기인 신라 지증왕 5년(504) 9월에 역부(役夫)들을 징집하여 흙으로 축성한 토성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 4>) 북미질부성을 끼고 흐르는 곡강은 《삼국사기》에 나온다. 《삼국사기》 제사(祭祀)에는 “대사(大祀)로 삼산(三山)을 들고, 중사(中祀)의 사독(四讀)으로 동(東)은 토지하(吐只河)인데 참포(槓浦)라고도 하니 퇴화(退火)에 있다.”라고 하였다.(《삼국사기》32 잡지 제1제사(祭祀-中祀)) 이를 통하여 ‘곡강’의 원명은 “토지하”이고 “참포”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22 흥해군 고적조에는 “신라에서는 이 강물을 거룩한 내로 섬기어 제사하였고 이 강물의 이변을 망국(亡國)의 조짐으로 표현하여 《삼국유사》와 《여지승람》에는 제53대 신덕왕 4년(916) 6월에 참포의 물이 바닷물과 삼일동안 서로 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북미질부성은 축조된 지 425년 뒤인 고려태조 13년(930)에 이 성의 성주(城主) 흰달(萱達)이 남미질부성의 성주와 더불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여 고려에 속하였으며, 현종 2년(1011)에 흥해읍성(興海邑城)이 축조됨에 따라 성의 기능이 약화되어 흥해군의 주변 성으로써 조선시대 중엽까지 동북 해적을 막는 해방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성의 흔적만 남아있고 성터에는 수십 기의 묘가 형성되어 있어 성의 제 모습을 온전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 3) 고현성(古縣城)

고현성이 있는 위치는 행정 구역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다. 지리적인 위치로는 동경 129° 02' 04", 북위 135° 52' 40"가 중심부가 된다. 이 토성이 있는 곳은 남쪽 오어사 항사리 계곡에서 발원하는 냉천이 영일만으로 흘러들면서 비옥한 평야지를 형성하고 냉천 동쪽과 서쪽에는 구릉성의 낮은 산지를 이루어 선사시대부터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냉천 동쪽은 붉은 황토와 석회석이 풍부한 지질이며 서쪽 역시 석회석과 붉은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성의 북쪽은 영일만, 동쪽에는 일월지, 일월동 고분군, 도구동 고분군, 서쪽에는 고읍성, 호동 고분군, 남쪽에는 원동 고분군, 냉천 주변에는 고인돌군이 3곳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는 청동기·초기철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아 마을을 이루고 거주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고현성이 있었던 곳은 진한 12국 중 근기국의 치소로 추정이 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신라초기에 근기국이 신라로 편입될 때 근오지현(近烏支縣)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서 말하

는 고현성의 고현이란 과거의 근기국과 근오지현의 치소였던 고현면의 고원리를 말하며, 현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院里)이다.

고현성(원동)은 신라 경덕왕 16년(755) 근오지현이 의창군(義昌郡)소속의 임정현(臨汀縣)(현 포항시 제철동 일부지역)으로 옮길 때까지의 읍치소였는데 토성으로 주위를 둘러 쌓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23권 <영일현 고적조>에 고현성은 “현 동쪽 15리에 토성이 있고 둘레는 1천척이며, 지금은 파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일월향지》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신라시대 토축성(土築城)으로 신라 근오지현의 군기(郡基)였다”고 전하며, 청림동에 있었던 오천서원을 고현리로 이전할 때 고현성지의 중앙에 건립하였다는 설도 있다.

신라 경덕왕 정유(丁酉)에 임정현(臨汀縣)이라 개칭하여 고읍성(제철동)에 축조하고 현기를 이전할 때까지 현기(縣基)였으며 토축성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록하여 근오지국의 중심지(치소)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은 포항시 호동마을, 호동 고분군 유적을 들 수 있는데, 이 유적은 고현성지에 인접하여, 높은 구릉 정상부에 자리 잡아 거주와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고지성 마을 유적으로, 약 280호의 집터가 발굴 조사됨으로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마을은 당시 소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고현성은 1996년 동대해문화연구소가 포항시의 용역을 받아 최초로 지표조사 후 펴낸 <포항시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오천읍 편에 의하면 이 성은 토성이 분명하였다. 축성된 방법이나 수습된 유물로 보아 신라 초기나 그 이전의 토성으로 추정되었다. 실측 결과 남쪽에 250m, 서쪽에 525m, 북쪽에 250m, 모두 1,025m가 남아있고 토성의 높이는 높은 곳은 2m, 낮은 곳은 1.5m정도였다.

현재 남아 있는 전체 토성의 모양은 계곡 위에 있는 능선을 둘러싸고 낮은 동쪽 부분이 열린 상태이다, 동쪽 벽면과 벽체는 거의 없어지고 남쪽과 서쪽, 북쪽의 일부가 남아 있다. 특히 남쪽 벽과 서쪽 벽은 남아 있는 상태가 온전한 곳이 많아 앞으로 토성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표조사 지역에서 고인돌군이 3곳(인덕, 문덕, 향사)이나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 초기 청동기 이래로 소국 형성의 배경이 되는 큰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수습된 유물들은 기와나 토기 조각들이었는데, 기와는 붉은 점토와 회색 점토를 소성시킨 것으로 이른 시기의 사선 문양이 있는 것이 많았으며, 토기는 회색 경질의 것으로 삼국시대 것이었다.

#### 4) 고읍성(古邑城)

대송면 장흥리(현 포항시 제철동)에 소재하며 신라시대에 축조된 토성으로서 임정현기의 소재(所在)였다. 이 고읍성은 신라 경덕왕16년(757) 근오지현을 임정현이라 개칭

하여 원리에 있었던 현기를 고읍성에 이전하고, 고려 현종 2년(1011), 구 연일읍성(舊 延日邑城)(현 대송면 남성리)을 축조하여 옮길 때까지의 현기 소재지였다. 그 후 대송면 남성리에 소재하던 구 연일읍기는 조선 영조 때(1774) 재차 고읍성(장흥리)에 이전하여 108년간 구 연일군청(舊 延日郡廳)소재지였다. 그 후 군기는 철종때(1849) 연일면 대잠리(현 포항시 대잠동)에 현기를 이전하였다가 고종3년(1866) 연일면 생지리로 다시 옮겼다.

### 5) 구 장기읍성(舊 長鬐邑城)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성내 마을에 자리 잡은 장기읍성은 이 고장의 진산(鎭山)인 동악산(東岳山)의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능선에 있다. 그 구릉아래 쪽으로는 장기천이 동해로 흘러 현내 들판을 형성하고 있다.

장기는 신라시대 퇴화군(退火郡) 지담현(只沓縣)이었다. 삼국시대에는 서라벌을 침공하는 왜구를 방어한 군사기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었다. 이 성은 일찍부터 동해안을 지키는 다른 성들과 같이 중요한 군사기지였음이 그 특성이라 하겠다. 이 지역과 경주 사이에는 산성들이 있는데 관문성(속칭, 만리장성)은 울산, 울주, 양남지역, 양북면의 팔조리산성은 감포지방, 시령(감재)산성은 장기지방, 북형산성은 포항지방의 군사거점이라고 할 때, 남·북과 서편에 산성을 둔 중심지역으로 구 장기읍성은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는 장기지방이 전력상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구 장기읍성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장기현 고적조>에 “구 읍성이 현의 남쪽 2리에 있는데 들로 쌓아 그 둘레가 486척(尺)이고 높이는 12척이며 샘이 두 곳에나 있다”고 하여 분명히 고려시대 이전에 고성(古城)이 있었음을 고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흔적을 확실하게 찾아볼 수는 없다.

### 6) 만리산성(萬里山城)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와 진전리 그리고 장기면 경계지대에 있는 토성의 흔적이 산 능선을 따라 수 리에 걸쳐서 남아있다. 이 토성의 특징은 지형을 이용하여 축성한 것으로 동쪽이 급경사를 이룬 자연적인 능선을 따라 흙으로 성벽을 쌓았다. 성벽 주변에는 많은 슬라그(쇠똥)를 수습할 수 있어 성내에서 철기를 다루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성 곳곳에 초소병사(哨所兵舍)터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같은 넓이의 평지가 있어 병사들이 이용하였던 장소로 추정된다. 이 지방민들에 의하면 이 성이 울산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오천읍 갈평리 오천 상수도 수원지 정상 부분에는 지름 약 20~30m의 못이 있어 만리산성의 병사들을 위한 수원지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 7) 신광토성(神光土城)

신광 토성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에 소재하고 현재 신광중학교와 신광면사무소 등 토성리 일대가 옛 성내에 속한다.

이 토성은 드물게 보는 평지성이다. 현재 토성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민가의 담장 등으로 토성 일부가 남아 있다. 토성 축조수법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축조법과 비슷하며, 성내에는 2개의 우물이 있어 현재 신광면사무소와 신광중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동쪽에 있는 독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외적 침입 시 전투를 지휘, 독려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 8) 문성산성(文星山城)

문성산성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와 학야리 경계 지점에 자리 잡은 성산(城山)에 있다. 성산을 일명 백마산(382.5m)으로 부르기 때문에 백마산성(白馬山城)이라고도 한다. 백마산이라는 지명은 다른 사서(史書)에는 찾아볼 수 없고, 학남선생문집(鶴南先生文集)의 《감고헌기(感古軒記)》에 산성과 백마산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도(東都) 경주는 신라의 옛 서울이며 북쪽 60리에 백마산이 있다.

백마산이라고 명명된 것은 신라말 충신 의사들이 슬픈 감회를 가지고 모여서 이룬 산성이었기에 ‘기자백마조(箕子白馬朝)’의 뜻을 빌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마산은 성이 있어 성산이라고도 하며, 서쪽에서 동으로 뻗혀 돌로 깎아 세운 듯이 한 고봉을 이루고 있다. 밑으로는 여러 산이 둘러 감싸고 봉우리 위에는 천지(天池)가 있으며, 신라 때 축성한 것이나 아니냐하는 시비가 있으나 축성기법상 신라시대에 축성하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동대해문화연구소에서 문성산성을 실측한 결과 문성산성은 돌로 성벽을 쌓은 석성(石城)이었다.

이 성의 둘레는 약 1km정도이며 가로 30~40cm, 세로 20cm 정도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내탁법(바깥쪽만 석축을 이루고 안쪽은 흙과 잡석으로 다져서 밋밋하게 쌓아 올리는 방법), 태외형(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정상부근에 테를 두른 듯이 쌓는 형태)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축성 시기는 신라시대인 것이다.

본래는 토성으로 축성하였으나 붕괴된 후에 석축으로 개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정상에는 둥근 형태의 가로 320cm, 세로 250cm의 천지가 있고, 그 둘레는 돌로 쌓았으며 깊이는 1m 20cm 정도였다. 이 천지라고 부르는 곳은 성안에서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성곽 곳곳에 건축물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많은 기

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현재 성의 높이는 약 2m, 폭2m로서 이산의 북쪽과 동쪽은 분지이고, 성이 있는 부분은 가파른 협곡을 이루고 있다.

문성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성되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조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여주는 것은 이 산성이 있는 위치가 군사상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정중환, <사로 6촌과 6촌인의 생자에 대하여>, 《三國史記》지리지, 역사학보(17, 18)합집, 1962.

천관우, <진변한제국의 위치시론>《백산학보》제20호, 1976.

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포항시, 《포항시사》, 역사편, 1987.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1991.

경주문화재연구소, 《남미질부성》지표조사보고서, 1997.

오천읍, 포항시, 《포항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동대해문화연구소, 1997.

## 제3절 사회·경제생활

### 1. 예족의 활동과 이 고장

#### 1) 예족의 활동

2세기 초엽 사로국이 파사왕대에 이르러 주변 소국을 병합하면서 영일, 울산 지역으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여 정복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동남방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골벌, 압독국 등 낙동강 중류쪽과 서북쪽 진출의 요지를 확보함으로써 가야·백제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3세기 말에는 가야지역 일부를 제외한 경북 전역을 포함하는 신라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지리적 환경이 내륙과 달라 유력한 정치집단이 성장할 수 없었던 동해안지역에는 예족(濊族)이 살고 있었다.

《삼국사기》신라본기 남해왕 16년조 “2월 봄, 명주의 땅을 얻은 예왕이 인장을 헌납하였다”는 기록과 신라본기 유리왕 17년조 “9월 가을, 화려, 불내 2현의 사람들이 기병으로 북쪽 국경을 침범하므로 예국의 장수들이 요곡하 서쪽으로 물리쳤다. 왕이 기뻐하며 예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강릉 부근에는 일찍부터 예족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보다 훨씬 남쪽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동(구, 마조리)에서 1966년 예백(濊伯)에게 주어진 동인(銅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동해안 전 지역이 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세기 초엽 지마왕대에서부터 4세기 초 내물왕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말갈의 강한 도전이 계속되어 방책을 튼튼히 하고 이들을 정벌하기 위한 군신회의 개최, 왕의 순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보인다.

《삼국사기》의 이 말갈 기사는 옥저 또는 동예의 예족 집단들로서 사로의 진출에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이들의 본색은 고구려 동남쪽의 변경에 살던 종족으로 ‘광개토대왕릉 비문(廣開土大王陵 碑文)’에는 ‘예(濊)’ 또는 ‘숙신(肅愼)’ 등으로 지칭되는 존재였다. 이들이 육로나 해로를 통해 남하하여 신라의 변경을 자주 침범하였다.

그리고 우리고장 신광면 흥곡리(마조리)에서 ‘진솔선예백장(晋率善濊伯長)’이란 동인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이 지역에 남하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말갈의 침입은 《삼국사기》에 의거해 볼 때 신라 지마왕 14년(135)부터 내물왕 40년(395)까지 모두 7회나 있었고, 그 침략 대상도 장령(대관령) 실직(삼척) 니하(강릉) 등 동해안의 북변지역이었다.

신라에서는 군사를 내어 이를 막기도 하였고, 또는 성을 쌓거나 목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시설을 만들어 말갈의 침입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 2) 고구려의 남진과 예족의 복속

그런데, 4세기말부터 5세기전반에는 말갈의 침입이 한동안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고구려는 국력팽창기인 광개토왕(391~491)대를 맞이하여 신라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남하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라의 세력권이었던 영남내륙의 깊숙한 지역까지 군현을 설치하고 있었다. 광개토왕 8년(398)에는 ‘속신’으로 지칭되었던 강원도 일대의 예족을 복속시킴에 따라 이후부터 말갈세력은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던 청하, 영덕 지역과 마주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까지 말갈이 고구려에 복속되고, 또 신라와 고구려 간의 우호관계가 유지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말갈의 침입은 일단 중단되고, 고구려가 영남 북부 일원에 대한 세력권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 신라는 일단 고구려의 남진을 흥해와 접하고 있는 청하 일대에 묶어두고, 대신 영일만을 통해 왕도인 경주로 침입해 오는 왜에 적극 대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흥해지역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해로를 통해 신라의 세력권이었던 강릉, 삼척지역과 연결시켜주는 전초기지로써 영일만으로 침략해 오는 왜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5세기중반 신라 눌지왕 34년(450)에 신라의 하슬라(강릉) 성주(城主)인 ‘삼직(三直)’이 실직원(삼척)에서 고구려의 변장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려(麗)·라(羅) 양국 간에 일련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야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갈세력은 또 다시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의 북변을 자주 침략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신라는 김씨 왕위 세습체제를 확립하고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자립화를 전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종래 고구려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양국 간에 수평적인 새로운 관계를 찾게 되었다.

## 3) 진솔선예백장(晋率善穢伯長)의 인장

1966년 흥곡리(마조리)에서 출토된 동인(銅印)으로, 10여개의 유리구슬[硝子玉]과 함께 출토되었다.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동인은 보물 제150호이다. 동인의 면은 23cm×28cm이며 높이는 25cm이다. 중국 진(晋) 대의 관인(官印)으로

방형의 인장면에는 ‘진솔선예백장(晉率善穢伯長)’이란 글이 적혀 있다. ‘진’나라가 주변국의 지배자에게 권력을 승인하는 징표로 준 인장으로 보인다. 흥곡리에 이 인장이 출토된 것은, 이 인장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생활하였다는 뜻이 되므로 곧 예족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이 인장은 예족 활동의 남방한계선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2. 삼국시대 이 고장의 중심지역

### 1) 중심지의 성장

현재 포함시 중·북부 지역의 경우 기계면과 흥해읍, 연일읍, 오천읍,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에 고인들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청동기시대에 큰 세력 집단이 이 지역에 존재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신광면, 청하면, 흥해읍 일대에 성곽과 고분 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고인들의 집중 분포 지역인 기계면과 흥해읍 칠포동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오천읍, 호동, 대송면, 동해면에 고분이 집중 분포되고 있어 삼국시대 우리고장의 중심지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중·북부지역은 고구려의 아혜현(阿兮縣)이 설치된 청하면을 제외하면 결국 신광면과 청하면 지역이 삼국시대에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는데, 흥해의 미실성(남미질부성)이 축조되는 6세기 초까지 유물·유적의 양상으로 볼 때, 세력 면에서 신광면이 흥해읍보다 우세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초에 신광면은 동잉음현(東仍音縣)으로 흥해읍은 퇴화군(退火郡)으로 각기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남미질부성이 축조되기 바로 전 해에 세워진 ‘영일 냉수리 신라비’에서는 당시 신광면 지역은 지증왕을 비롯한 신라의 유력한 귀족들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신광은 경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요지였기 때문에 정치적, 문화적으로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 2) 중심 지역의 변화

삼국시대의 신광면은 동잉음현의 명칭을 가지고 포함 중·북부 지역에서 정치적 중심지로 입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었으나,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오히려 읍격(邑格)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면 흥해읍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縣)보다 상위 단위인 퇴화군(退火郡)이 설치되었다.

결국 이러한 두 지역이 읍격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은 흥해읍이 갖는 군사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흥해지역은 왜가 해안으로(동해구) 상륙하여 경주로 침입하는 도중에 있었고, 한때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던 청하지역과 바로 경계를 마주하던 때도 있었다. 더욱이 481년에는 고구려와 말갈세력이 흥해까지 침입하여 왕도인 경주를 위협한 바도 있었다. 따라서 흥해지역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해로를 통해 신라의 세력권이었던 강릉, 삼척지역을 연결해 주는 전초기지로써 군사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미실성(미질부성)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504년에 축조된 것이었다. 그리고 신라의 국가적 제사인 중사(中祀)의 4독(4개의 큰강) 가운데 동독에 해당하는 토지하(참포)가 흥해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곡강천(曲江川)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러한 제사의례는 전국 각 방면의 군사적 위협 요소를 진압한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흥해지역이 갖는 군사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흥해읍 북쪽에 있는 청하는 한때 고구려 세력권의 최남단 지역으로 고구려가 아해현(阿兮縣)을 설치한 곳이다. 이때의 치소(治所)가 현재 고현리 ‘하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3. 흥해지역의 중요성 대두

고구려는 신라 눌지왕 38년(454) 8월 선제공격을 한 후, 소지왕 3년(481) 3월에는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호명성(청송)등 7성을 빼앗고 여세를 몰아 흥해인 미질부까지 진격하여 왕도인 경주를 위협하였다. 이에 신라는 백제·가야의 원병과 함께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강릉부근에 있는 니하에서 이를 격퇴시켜 1천여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집요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5세기 중엽 신라 자비왕은 고구려와 말갈뿐만 아니라 백제의 변경상의 전략적 요충지에다 대대적인 축성사업을 활발하게 벌였다. 동왕 11년(468) 9월에는 강릉부근인 니하에 축성하여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에 대처하였으며, 왕 13년(471)에는 보은(충북)에 3년산성(三年山城)을 축조하여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장차 백제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비를 하였다. 6세기 초 지증왕 5년(504) 9월에는 파리(波里)·미실(彌實)·진덕(珍德)·골화성(骨火城) 등 12성을 쌓았다. 여기서 파리는 삼척으로, 미실은 미질부와 같은 이름으로 보아 흥해로, 골화성은 영천에 각각 비정되고 있다. 당시 흥해에는 남미질부성과 북미질부성이 함께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쌓은 성은 고구려와 말갈이 자주 침입해오는 동해안 방면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481년(소지왕 3년)의 남침 시에 큰 허점으로 드러났던 왕도지역의 취약한 방어망을 우선적

으로 보완하려는 시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라는 이들 변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배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군사조직망을 갖추게 된다. 즉 지증왕 6년(505) 3월에 주·군제(州·郡制)가 처음 실시되고 동해안 방면의 군사적 요지인 삼척에 처음으로 주를 설치하고(실직주), 이사부를 군주(君主)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미질 부성이 있는 흥해지역은 2세기경 신라에 복속된 이래 신라가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였다. 그러나 동해안지역에 생활 근거를 둔 말갈 세력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벌어져 그들로부터 빈번한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반 경에는 말갈세력이 고구려에 복속되고, 또 신라와 고구려 간에 일방적인 우호관계가 유지되는 배경 하에서 말갈의 침입은 한동안 중단되고 대신 고구려의 남진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영남 동북부지역이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로 놓이게 되었다. 한편 왜는 이 시기에 영일만을 통해 왕도인 경주를 빈번하게 포위 공격하던 때라 흥해지역은 북으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해로로 신라의 세력권이었던 강릉·삼척 등 동해안 방면을 연결해주던 전초기지였으며, 영일만을 통해 침입해오는 왜를 방어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어 5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흥해에는 481년의 흥해 침입을 계기로 왕도를 방어하기 위한 요충지로서 뿐 아니라 동해안 방면의 신라 세력권을 방어하기 위한 길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미질부성’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 4. 신라의 지방 통치와 우리고장

신라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조직을 마련하여 지방을 지배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도 점차 정비하였다. 2세기 파사왕대에 이르면서 우리지방의 소국(小國)들은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는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주요 거점이 되었던 것은 성(城)이었으며, 나중에 군(郡)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앙에서 직접 관리가 과견되었다. 신라에서 처음 주·군제(州·郡制)가 실시된 것은 지증왕 6년(505) 2월이었다. 이 때 동해안 방면의 군사 요지인 삼척에 처음으로 주(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군주가 과견된 신라의 주는 5주였으며, 주는 성을 통괄하는 큰 행정구역이었다. 주 아래의 단위는 현(縣)이었다. 당시 흥해는 퇴화군(退火郡), 안강은 비화현(比火縣), 장기는 지답현(只畚縣), 신광은 동잉음현(東仍音縣), 오천·연일은 근오지현(斤烏支縣), 기계는 모혜현(毛兮縣)이었다.

그런데 통일 이전의 신라의 지방제도는 주·군으로 되어 있었고 현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은 정치적·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주(州)나 군(郡)을

설치하였으나 주·군의 종속관계는 단지 지방 통치상의 지위 명령 계통을 의미할 뿐이지 모두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것이었다. 주와 군의 하부조직으로 성(城) 또는 촌(村)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신라 중고기의 지방관계는 주(군주) 군(당주) 성·촌(도사)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은 성주가 관할하는 곳으로 방어시설물을 갖추고 근처의 몇 개의 촌락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해한다. 신라에 일찍 복속된 울산의 굴아화촌은 자연촌이 아니라 군현의 전신이 되는 촌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중고기에는 1개 군에, 4개 정도의 촌이 소속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흥해의 퇴화촌(退火村)은 남미질부성과 북미질부성을 각각의 세력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2개의 성, 촌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촌에는 일반적으로 중앙관인 도사(道使) 등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일 냉수리신라비에도 탐수도사(耽須道使)의 존재가 보이고 그 관할구역으로 비문에 나오는 탐수촌(耽須村)과 진이마촌(珍而麻村)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실성(미질부성)의 축조 직후인 6세기 초 지증왕대를 전후로 한 시기에 퇴화군이 설치되었으며, 퇴화군은 2개의 성, 촌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퇴화군의 행정은 지방관으로서의 당주(도사군)과 재지 유력세력으로써 촌주(村主), 장척(匠尺), 문척(文尺) 등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중환, <사로육촌과 육촌인의 생자에 대하여>, 《역사학보》제17·18합집, 1962.  
 박일천, 《일월항지》, 영일군, 1962.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87.  
 《매일신문》대구 1989. 4. 13. 《조선일보》 1989. 4. 14. 《동아일보》 1989. 4. 14.  
 《경향신문》 1989. 4. 18.  
 사단법인 모산학술재단, 《냉수리신라비발굴연구》, 1989.  
 《삼국유사의 현장적연구》제11집, 서경문화사, 1990.  
 한국고대사연구회, 《한국고대사연구》3, 지식산업사, 1990.  
 <세계일보> 1991. 1. 15, 《세계일보》 1991. 3. 18, <영일소식> 1991. 5. 10.  
 경주문화재단연구소, 《장기읍성 지표조사보고서》, 1991.  
 경주문화재단연구소, 《남미질부성지표조사보고서》, 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7, 1997.  
 국립경주문화재단연구소, 《포항 중성리 신라비》 발견기념학술심포지엄, 2009.  
 포항시, 《발견기념학술대회-포항중성리신라비》,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위원회·한국고대사학회, 2009.

## 제4절 고대의 문화

문화란 좁게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루어 놓은 성과를 말하며, 넓게는 생활양식 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 지방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방의 문화는 그것이 형성되었을 당시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그 속에 담고 있다. 우리는 우리고장의 문화를 통하여 이 지방의 역사를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있는 고분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삶의 양식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고장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자연 조건과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보편적이면서 개성 있는 문화를 이룩하여 왔다.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문화유산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1. 문화의 성격

고대 이 고장은 소국이 발전되어 가다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문화에 있어서도 소박한 옛 전통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삼국시대나 신라시대의 특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지배층의 것으로 여겨지는 고분에서는 세련된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다. 이 지방의 설화나 신앙생활 등에는 이 고장 사람들의 전통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배층 사회에서는 삼국시대 다른 고장에서 들어온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보다 세련되고 다양한 성격의 문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방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곳은 영일만 북쪽지역인데 예족과 고구려의 문화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다. 한편 가야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 고장의 매장문화재의 성격은 토착적인 문화 위에 지형적으로 북방적인 문화 요소와 남쪽에서 올라온 가야적인 요소가 수용되는 길목에 해당하는 곳으로 삼국시대의 문화는 신라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면서, 북방과 남방의 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영일만과 형산강을 경계로 하여 남·북이 구분되는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 고장의 문화적 성격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2세기까지는 선사에서 연결되는 북방적인 요소와 토착적인 성격, 그리고 신라적인 성격, 3세기에 들면서 나타나는 가야

적인 요소와 신라 4세기 이후의 고구려적인 성격과 예족문화의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겪는 정치적인 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 우리고장의 금석문

### 1) 영일 냉수리 신라비

#### (1) 발견

국보 제264호(1991. 3. 15 지정) 영일 냉수리 신라비는 현재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2(신광면 사무소 관내)에 있다. 이 비는 1989년 4월 6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이상운(李相雲)씨 소유 밭에서 밭갈이를 하던 중 평소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파헤쳐서 빨랫돌로 사용하려고 집으로 운반하여 물로 씻어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학계에서 현지 조사한 바,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 (2) 규모

이 비의 형태는 화강암의 고르지 못한 면을 가진 자연석에 전면과 후면 그리고 상면(上面)에 글씨를 새겼다. 비석의 윗면에 글씨를 새긴 유일한 것이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예는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울진의 봉평비와 같은 왕 12년(525)에 새겨진 울주의 천전리 명기(銘記), 법흥왕 23년(536)에 세워진 영천의 청제비, 진흥왕 22년(551) 무렵의 단양 적성비 등 신라의 고비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전통은 진흥왕 29년(568)의 북한산비(다듬은 비석)에 와서 벗어난다.

냉수리 비석의 크기는 폭 70cm, 높이 60cm, 두께 30cm의 돌로 하단이 넓고 상단은 폭이 좁게 되었다.

비석의 전면은 상단과 하단의 가로가 각각 65~73cm, 세로의 우측과 좌측이 각각 66~47cm이고 후면은 가로 65cm, 세로의 우측과 좌측이 49~69cm이며, 상면은 가로 64cm, 세로 30cm이며, 측면의 폭은 30cm이다. 비문(碑文)은 전면에 12행 152자, 후면에 7행 56자, 상면에 5행 20자가 새겨져 있어 총 231자가 새겨져 있다. 글자 크기는 가장 큰 것의 길이와 나비가 각 7cm, 작은 것은 1cm 정도이다. 글자의 새김에는 세로줄과 가로줄이 잘 맞추어지지 못하였으며, 글자의 가로가 맞추어지지 않은 것은 전면의 경우 각 행의 첫 자가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새겨 시작하는 첫 자를 맞추지

얇은 데에 있고, 줄이 비뚤어진 것은 돌의 흠을 피하여 새겼기 때문이다. 이 비석의 글자는 해서체(楷書體)로 되어 있다. (고졸한 예서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 (3) 영일·냉수리비 판독문

#### ● 전면(前面)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此二王教用珍而。麻村節居利爲證尔令其得財教耳。  
 癸未年九月廿五日沙喙至都盧葛文。王斯德智阿千支子宿智居伐千支。  
 喙尔夫智壹千支只心智居伐千支。本彼頭腹智千支斯彼暮斯智千。  
 支此七王等共論教用前世二王教。爲證尔取財物盡令節居利。  
 得之教耳別教節居利若先。死後令其弟兒斯奴得此財。  
 教耳別教末鄒斯申支。此二人後莫更導此財。

#### ● 후면( )

若更導者教其重罪耳。典事人沙喙壹夫。智奈麻到盧弗須 仇。  
 休喙孰須道使心 訾公。喙沙夫那斯利沙 喙。  
 (蘇)那支此七人踪踪所白了。事煞牛拔 誥故記。

#### ● 상면(上面)

村主吏支千。支須支壹。今智此二人世中。了事。故記。

### (4) 풀이

이 비의 내용을 풀이하면 “신라의 실성왕과 내지왕(乃智王) 두 왕이 진이마촌(珍而麻村)의 절거리(節居利)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고 교(敎)를 내렸는데 계미(癸未)년 9월 25일 지증왕 등, 각부의 대표 7명이 함께 논의하여 두 왕의 조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별교(別敎)를 통해 절거리가 죽은 후에는 아우, 아사노(亞斯露) 또는 아우의 아들 사노(斯露)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미추(末鄒) 사신지(斯申支)는 재물 분배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중죄에 처할 것임을 결정한다.

이 명령은 중앙기관의 전사인(專事人) 7명과 지방관서의 촌주(村主) 2명이 일을 마치고 이 사실을 기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5가지이다.

① 절거리(節居利)라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산취득을 인정한다는 것, ② 절거리가 죽은 뒤 그의 재산은 그의 동생과 동생의 아들이 상속한다는 것, ③ 이것을 어길 경우 중죄에 처한다는 것, ④ 중앙에서 파견된 전사인(典事人)이 상속문제를 집행한다는 것, ⑤ 촌주(村主)가 이 비석을 세운다는 것이다.

### (5) 영일 냉수리 신라비의 역사적 의의와 연구쟁점

① 이 비석은 재산권 분쟁을 각부의 귀족들이 합의하여 처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5~6세기 무렵 신라의 정치·경제·사회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보 제264호로 되었다.

② 신라시대 비석으로 서기 503년(지증왕 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동안 비문에 나타난 계미년(癸未年)의 연대 연구, 즉 건립연대 문제를 두고 3가지의 견해 즉, 서기 383년, 443년, 503년이라고 보는 견해와, 계미년을 계해년(癸亥年)으로 보아 서기 483년이라는 연구도 있었으나 서기 503년으로 추정되었다.

#### • 서기 383년의 주장

비문의 계미년은 443년과 503년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렇게 계미년의 연대를 좁혀가는 것은 비문에 나오는 사훼지도로갈문왕(沙喙至都盧葛文王) 때문이다. 지도로갈문왕은 음상사(音相似)에 의해 문헌의 지증왕과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광개토왕릉비, 중원고구려비, 봉평비에 근거 할 때 마립간 시기의 왕호가 아니고 그 이전의 왕호가 되고, 비문 자체에서 사부지왕과 내지왕은 동일 시기의 공립(共立)된 왕들이므로 계미년은 38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 443년 설

영일 냉수리 신라비의 제2절에 나오는 계미년(癸未年)은 다른 문헌자료와 대조 연구로 보아 443년(눌지왕 2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443년이란 결론을 내린 것은 비문에 나오는 내지왕(乃智王)과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을 각각 문헌자료에 나오는 눌지왕과 지증왕으로 대비하고, 그 동안의 신라왕들의 재세연대 등에 관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에 신빙성을 둔다는 조건 하에 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 503년 설

계미년(癸未年)은 443년(눌지왕27)과 503년(지증왕4) 가운데 하나인데, 냉수리 신라비의 형태와 서체, 건립연대를 살펴보았을 때 형태와 서체가 울진봉평신라비와 상당히 유사하나 더 고졸하여 이보다 이른 시기의 건립연대 계미년을 금석학적 방법 및 문헌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503년임을 고증하였다.

#### • 483년 설

이 주장은 계미년을 계해년(癸亥年)으로 판독하고 7왕을 7주로 보았다. 따라서 건비연대를 소지왕 5년인 483년으로 확정하면, 종래 443년 설과 503년 설이 가진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덕지(德智)라는 인물의 관등이나 활동시기를 《삼국사기》와 비교해 볼 때 483년 설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상의 주장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은 비문에 나오는 계미년이 바로 이 비를 제작(건립)한 연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비문에 나오는 사건의 연대와 비의 건립연대는 구분해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날에 이 비를 건립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6) 연구 성과

### ① 금석학적인 분석

금석학상으로는 이 비는 신라 금석을 여는 원초적인 서법(書法)이라 하겠다. 서체는 서법이나 형식과 같은 것에 아무런 구애 없이 붓 가는 대로 새겨 뺀어 무위작(無爲作)의 서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비문은 초기 신라의 한자 전래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 비석의 비문은 신라 금석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보존 상태가 극히 양호하여 비문의 판독을 거의 정확히 할 수 있다. 그 결과 비문의 완전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석학상 서체(書體)를 깊이 연구 할 수 있다. 비석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밑부분이 넓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부정형의 사각모양을 한 자연석의 앞면·뒷면·윗면에 총 231자가 예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글자 크기는 가장 큰 것의 길이와 나비가 각 7cm, 작은 것은 1cm정도이며, 비석의 윗면에 글씨를 새긴 유일한 것이다.

### ② 비 내용의 단락별 분석

이 비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계미년 이전에 사부지왕(실성왕)과 내지왕(눌지왕)이 절거리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둘째 단락은 지도로 갈문왕 등이 6부 회의를 열어 공론하여 왕에게 아뢰어 그것을 교(敎)로 내렸는바, 한번의 교와 두 번의 별교(別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의 내용은 전세2왕(前世二王)이 이미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던 절거리에게 그 기득권을 다시 인정해준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별교는 절거리가 죽은 동생 아사노로 하여금 그 권리를 잇도록 하는 상속권(相續權)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 별교는 이 재산에 대해 다시 거론하면 중죄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셋째 단락은 교의 내용을 집행하는 전사인(典事人)의 인명과 관등, 관직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이 소를 잡아 고(誥)하는 제사의례를 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이와 같이 일련의 결정과 집행한 내용을 촌주(村主) 2인이 이해 중에 기록하여 본 비를 세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 (7) 비석의 성격

① 이 비의 성격은 개인의 묘지명(銘)과는 달리 국가적인 사건을 다루었다. 국가에서 세운 비석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② 이 비석은 왕의 명(命)을 싣고 있는 점에서 초기 율령(律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으며 사법적인 처리, 왕권의 발달, 화백(和百)회의의 실상 등 문헌자료로서는 메울 수 없는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③ 이 비의 건립 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건립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財)의 정확한 실체 파악이 중요하다. 재는 비문에 ‘재물(財物)’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상속도 가능한 것이다. 재(財)는 토지 등과 같이 보편적이 것이 아니고 금, 은, 철 등의 광산과 같은 특수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 비가 발견된 지역은 원래 하늘에 제사하는 장소로써 파사왕 때 신라의 영역이 된 이후에도 소지왕 때 와서 제사체계를 재편성하면서 제사권을 중앙정부에서 장악한 것이다. 본 비는 신라의 중앙 정부가 일원화된 제사체계를 강하게 보이기 위해 세운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⑤ 이 비문을 어문학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비문은 거의 완전한 한문이나 고유의 국명·인명·지명·관명 등은 우리말을 차자표기(借字表記)한 것을 알 수 있다.

⑥ 비문의 내용은 절거리라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서 이해 당사자와 이 소송에서 절거리의 승소를 확정된 중앙기관의 교시(敎示)와 관계자와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므로 절거리 측에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 (8) 신라의 부(部), 관등(官等), 관직(官職)에 대한 새로운 사실

① 비에 보이는 부(部)의 성격과 정치 운영문제는 이 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개의 부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 비에서 휘(喙)·사휘(沙喙)·본피(本彼)·사피(斯彼)부의 부명을 확인할 수 있다. 4부명이 나옴을 볼 때 5세기 이래 벌써 6부체제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6부체제는 내물왕대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신라는 왕경 6부체제의 지배형태였으며, 그 중에서도 휘(喙)·사휘(沙喙)의 2부 지배체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부는 우열을 결정하기 어려운 백중(伯仲)하는 세력의 부(部)였다고 보겠다. 따라서

종래 박씨(朴氏) 왕비족설과 모랑부 박씨족설은 성립될 수 없는 오류이다.

신라에서 왕족 김씨(金氏)는 5세기에는 휘부, 사훼부 2부에만 거주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인형태는 족내혼이었다.

이 비에서 가장 주목되는 갈문왕 지도로는 매금왕(寐錦王)에 즉위하기 전의 지증왕임을 알게 되었다. 갈문왕은 사훼부에 소속되었으며, 국왕은 휘부에 소속했다.

갈문왕으로서 국왕에 즉위한 지증은 소속이 사훼부에서 휘부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갈문왕이 된 왕의 아우는 사훼부로 분가(分家)·이가(移家)하여 별립문호(別立門戶)하고 사훼부에 소속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로 갈문왕은 국왕에 즉위할 수 없다는 종래의 인식을 근거로부터 뒤엎게 되었다.

지도로가 갈문왕에서 국왕에 즉위했다는 것은 이 비에서만 알 수 있는 신라사의 새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갈문왕이 화백회의의 의장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점은 갈문왕 연구에 새로운 사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기사이다.

당시 신라는 매금왕·갈문왕 2원부(二元部) 왕권과 표리일체가 된 휘·사훼의 2부 지배체제였다는 것이 이 시대 정치체제의 특징이었다고 본다.

② 이 비에 보이는 관등(官等)과 관직(官職)의 문제는 그 표기 방식의 경우 올진 봉평비와 유사하며, 단양 적성비 단계의 과도기를 거쳐 창녕비 단계에 이르러 변화하고 있다. 전사인(典事人)의 경우는 고관제(古官制)이며, 소사(小舍)까지 13관등 체제였다.

촌주(村主)가 보유한 외위간지(外位干支)는 7관등에 대응되며, 아간지(阿干支), 나마(奈麻) 등의 관등명이 나타나 경·외위(京·外位) 일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관직 문제에서는 갈문왕이 3대에 걸쳐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관직체계는 ‘7왕등(七王等)’으로 표현되는 대등(大等)집단의 전신으로서의 부(部)의 대표자 집단에 의한 상급 통치조직과 전사인(典事人), 도사(道使)와 같은 하급 통치조직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2) 중성리신라비

### (1) 발견

중성리신라비는 2009년 5월 11일, 주민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도로개설 공사현장(흥해읍 학성리 중앙교회 앞)의 한쪽에 치우쳐 있던 편평한 돌을 주민(김모씨, 47세)이 집으로 옮겨 사용하려고 세척하던 중 글자가 있음을 확인한 후 5월 14일 포항시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중성리신라비는 일부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이동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2) 규모

중성리 고비는 부정형의 자연석(화강암, 최대길이 104cm, 최대너비 49cm, 두께 12~13cm, 무게 115kg)으로 한 면에만 음각을 하였다. 이 비가 발견된 곳은 1989년에 발견된 ‘영일 냉수리비’ (국보 제264호)가 발견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8c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글자는 모두 12행으로, 한 행에는 많을 경우 20자 내외이며, 모두 203자가 확인되었다. 비의 하단부에 약 20cm 정도 여백이 있을 뿐, 상단부까지 글자가 가득 새겨져 있다. 비의 맨 위쪽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대부분 판독 가능한 상태로 양호하다.

## (3) 내용

이 비의 대의(大意)는 “빼앗은 재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는 것이었다.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 비석으로 추정되는 ‘포항 중성리신라비(中城里新羅碑)’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문 판독 결과, “과거에 모단벌(牟旦伐·사람 이름)의 것(재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향후 이에 대한 재론(再論)을 못하도록 한다”, “이런 판결 과정을 반포해 현지인과 후세에 경계로 삼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문에는 신라 6부(部) 중 가장 강력했던 ‘喙部(훼부)’와 ‘沙喙部(사훼부)’가 등장하며, ‘居伐(거벌)’, ‘古利村(고리촌)’ 등 현재의 포항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명이 들어 있다. ‘阿干支(아간지·6등급)’, ‘沙干支(사간지·8등급)’ 등의 관등명과 ‘道使(도사)’, ‘使人(사인)’ 같은 관직명도 확인되었다.



● 중성리 신라비

## (4) 쟁점

중성리신라비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학술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① 비의 제작 시기는 언제인가?

중성리비문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문 첫

대목에 보이는 ‘辛巳(신사)’라는 간지가 중요한 단서이다. 비의 형식이나 서체, 비문에 등장하는 6부의 명칭이나 관직명 등으로 보아서 신라 지증왕 2년(501년)으로 추정하는 연구자도 있고, 비석의 한문 구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신라의 옛 국호인 ‘斯盧(사루)’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보다 60년 빠른 441년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는 것이다.

501년이라고 하여도 지금까지 최고(最古) 신라비로 알려진 영일냉수리비(503년 추정)보다 2년 앞서는 것이어서 이 비가 ‘신라 최고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② “재(財)”란 어떤 것이며, 어찌하여 이곳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판결하는가?

비의 내용은, 영일 냉수리비의 내용처럼, 재물(또는 토지 등 재산)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로 ‘과거에 모단벌의 것(재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향후 이에 대한 재론을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판결의 과정(관련자 등)과 내용을 현지에서 반포하여 현지인 등과 후세에 경계로 삼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인 것이다.

(5) 판독문

辛巳□□中折 盧□。  
 喙部 習智阿干支 沙喙 斯德智 阿干支。  
 教 沙喙尔抽智奈麻 喙部牟 智奈麻 牟牟子。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公斯彌沙喙夷須牟旦。  
 伐喙斯利壹伐 皮末智牟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沙干支 祭智壹伐 使人 奈蘇毒只道使 喙念牟智沙。  
 喙鄒須智世令于 居伐 壹斯利 蘇豆古利村 仇鄒列支。  
 干支 沸竹休壹金知 那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知。  
 珍伐壹昔 云豆智沙干支宮曰 夫智宮奪尔今更還。  
 牟旦伐喙作民沙干支 使人果西牟利白口若後世更。  
 導人者与重罪 典書 与牟豆故記。  
 沙喙心刀里□。

(6) 풀이 - “빼앗은 재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辛巳년 (某月)中에 折盧□,  
 喙部の 習智 阿干支와 沙喙의 斯德智 阿干支가 沙喙의 尔抽智 奈麻, 喙部の 本智 奈麻에게 教(지시 또는 명령) 하였다.  
 本牟子和 喙沙利와 夷斯利가 사뢰기를(白)  
 ‘爭人(소송 당사자)은 喙의 評公 斯彌, 沙喙의 夷須 牟旦伐, 喙의 斯利壹伐과 皮末智,

本波喙의 柴干支와 弗乃 壹伐, 金評 沙干支와 祭智 壹伐이고, 使人(재지 촌주)은 奈蘇 壽智이며, 道使는 喙의 念牟智, 沙喙 鄒須智, 居伐의 壹斯利이다'라고 하였다.

蘇豆古利村의 仇鄒列支 干支와 沸竹休 壹金知, 那音支村의 卜岳 干支와 走斤 壹金知 등이 世間에 명령한다.

珍伐의 壹(地番 혹은 里?)은, 옛날에 말하기를(昔云), 豆智 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 빼앗았던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牟牟伐에게 돌려주어라.

(이에) 喙의 作民 沙干支의 使人 果西牟利가 '만약 後世에 다시 말썽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重罪를 준다'라고 하였다.

典書인 輿牟豆(또는 典書와 牟豆)가 (이러한) 연고로 기록한다.

沙喙 心刀里□(세운다?)

## (7) 논의

### ① 건립 연대

특히 비문 맨 앞에 나오는 '辛巳'는 이 비가 건립된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441년 설과 501년 설로 압축되고 있다.

- 441년 설의 주장자들은 '중성리비의 어문학적 검토'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성리비문의 한문 구사력이 냉수리·봉평비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문장 끝에 나오는 '교(敎)'자의 경우 '~이(耳)'나 '~지(之)' 같이 문장의 품격을 돋보이게 만드는 종결 어기사(語氣詞)·말의 기운을 조절하는 품사가 없는 게 특징이라는 것. 즉 냉수리비의 '~교이(敎耳)'와 봉평비의 '소교사(所敎祠)'같은 한문 구사력에 미치지 못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결국 중성비가 "한문 구사력이 뛰어난 냉수리비나 봉평비보다 앞선 시기의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명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盧'를 신라 국호의 다른 표기인 '사로(斯盧)'로 판독한다면, '사로'는 신라(新羅)나 사라(斯羅) 등의 명칭보다 앞서는 국명으로 중국 자료인 <삼국지·위서 한전> 등에 등장하는 기원후 3세기쯤에 쓰인 명칭이다. 금석문 자료에 따르면 '사로'는 사라(斯羅·영일 냉수리비·503년) → 신라(新羅·울진 봉평비·524년)로 바뀐다. 따라서 이 중성비의 건립연대가 기원후 3세기~영일 냉수리비 연대(503년) 사이의 신사년(辛巳年) 가운데서도 441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501년 설의 주장자들은 "비문에 등장하는 '사탁(沙喙) 사○지(斯○智) 아간지(阿干支)'가 냉수리비(503년)에도 나오는 '사탁(沙喙) 사덕지(斯德智) 아간지(阿干支)'와 동일인물이라고 보았을 때 중성리비 역시 501년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441년에 건립됐다면 동일인물이 58년이 지난 501년에도 같은 관등을 유지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우태 교수는 비문 첫머리 글자를 ‘○절로○(○折盧○)’로 해독하면서 “〈삼국유사〉에서 지철로(智哲老)로 지칭된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년)과의 연관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하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당초 명문 첫머리에 새겨진 ‘신사(辛巳)’라는 간지 등을 검토한 뒤 비석의 연대가 501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신라고비, 즉 영일 냉수리비(503년)보다 2년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비의 내용으로 보아 6세기(辛巳年은 501년, 561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561년에 건립된 ‘창녕 진흥왕척경비’ 등에 ‘阿尺干’, ‘沙尺干’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관등명이 이 비에서는 ‘阿干支’, ‘沙干支’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보다 이른 시기인 501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판독 내용 중 ‘敎’, ‘沙喙部’, ‘古利村’, ‘道使’, ‘使人’, ‘阿干支’(신라 제17관등 중 6관등), ‘干支’ 등의 글자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③ 비의 내용은, 영일 냉수리비의 내용처럼, 재물(또는 토지 등 재산)과 관련된 소송의 평결로 ‘과거에 모단벌의 것(재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향후 이에 대한 재론을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평결의 과정(관련자 등)과 내용을 현지에서 반포하여 현지인 등과 후세에 경계로 삼는 것을 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내용을 현지에서 반포했는지와 재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의 문제이다.

### 3. 불교 수용과 이 고장

불교는 삼국이 중앙집권국가로서의 체제의 확립과 지방세력의 통합에 힘쓰던 4세기에 전래 수용되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백제에서는 침류왕 때에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한 불교를 공인하였으나,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묵호자가 일선군(선산)의 모례라는 사람의 집에서 처음으로 포교를 하였다. 삼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왕실이었다. 따라서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당시의 불교는 종교로서의 구실과 함께 서역과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달하여 고대문화의 발달에 공헌하였다. 또 인간 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려 하였다. 아울러 하나의 불법에 귀의하는 같은 신도라는 신념은 국왕을 받드는 같은 신민이라는 생각과 함께 중앙집권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문화·정치·외

교·생활양식 등 각 방면에 지도적인 이념이 되고, 한편으로는 토착 신앙을 포섭하면서 보급되었으므로 뒷날까지 토착신앙과 융합되어 사머니즘적인 성격도 띠게 되었다. 민간신앙과 융합되면서 크게 발전한 불교는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불교가 신라에서 공인된 것은 이차돈이 순교한 법흥왕 14년(527)이며, 이후 신라에서는 호국불교, 현세 구복적인 불교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름난 고승도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불교가 공인되자 이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믿게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촌락과 교통로가 생겨나고 교화가 이루어지며, 이 고장의 사회문화 형성은 물론 신라의 지방사회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배층인 왕족의 거주지와 인근 지역인 우리고장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사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 현존하거나 기록상으로 있었던 사찰은 오천읍의 오어사(吾魚寺), 장기면의 석남사(石南寺), 고석사(古石寺), 영취사(靈鷲寺), 평등사(平等寺), 신광면의 법광사(法廣寺), 대성사(大成寺), 안국사(安國寺), 포인사(布仁寺), 덕인사(德仁寺), 진기사(鎭氣寺), 흥해읍의 천곡사(泉谷寺), 백련사(白蓮寺), 남암사(南岩寺), 청하면의 상태사(常泰寺), 성법사(省法寺), 아혜사(阿兮寺), 아룡사(亞龍寺), 대보면의 해봉사(海鳳寺), 동해면의 흥불사(弘佛寺), 몽운사(夢雲寺), 선암사(船岩寺) 등이었다.

### 1) 오어사 ( )

오어사의 현재 행정구역상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향사리 34번지이다.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대에 건립된 사찰이라 전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오어사는 문제산 동쪽 계곡에 있었으며 원래의 이름은 향사사(恒沙寺)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향사사(恒沙寺)는 지금의 영일현 오어사이다. 세상에서는 향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향사동이라 했다” 이 향사사를 오어사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은 전설이 여러 사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를 하던 원효와 혜공이 어느 날 절을 끼고 흐르는 계곡의 상류에 있는 바위 위에서 만나 그 동안 수도한 법력을 겨루게 되었다. 개천에서 노는 고기를 한 마리씩 입으로 삼키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시합이었다. 원효와 혜공은 다같이 물고기를 한 마리씩 삼키고는 개천에다 같이 대변을 보았다. 그런데 한 마리만 살아 움직였다. 그 한 마리를 두고 원효와 혜공은 서로 자기가 되살린 고기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서로 주장한 ‘내 고기(吾魚)’란 말 때문에 그때부터 이름을 오어사로 바꾸었다”고 한다.(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영일읍지, 오어사 사적에 기록) 이 사실은 서동화상비(誓幢和商碑)에도 ‘향사광언(恒沙狂言)’이라고 나온다. 이 이야기는 원효가 스승 혜공과 사제 간에 파격적

으로 친구가 되어 기행(奇行)과 해학(諧謔)과 선문답(禪問答)을 즐겼던 사실을 이와 같은 극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효가 동경(경주)서 여러 경전의 소(원효의 명저인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 화엄경소, 아미타경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를 저술하면서 매양 혜공에게 찾아가서 질의하였다. 혜공은 별호가 부개화상이었다.

그는 당대의 기승으로 매양 크게 술이 취해 부대를 등에 지고 저잣거리를 미친 듯이 다니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여 노래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부대(부개)를 지고 다닌다 하여 사람들이 부개화상이라 불렀고, 그가 살던 절을 부개사라 하였다. 지금도 우리지방에서는 자루를 부대라 한다.

혜공(惠空)이 말년에 운제산 향사사에 가서 주석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원효(元曉)가 혜공에게 질의하려고 내왕했던 것이다. 혜공은 당대의 고승으로 불교학에 조예가 매우 깊었다. 원효 같은 박학다식(博學多識)의 천재가 자주 와서 질의하는 사실을 보아도 알만하다. 혜공은 원효에게 위대한 감화를 준 듯하다. 그의 민중불교 전도자로서의 기행과 수행하는 스님의 생활을 초탈한 과격적인 행동거지는 혜숙(惠宿)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으며 원효에게 영향을 주었다. 원효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동네방네를 누빈 것도 혜공에게 배운 것인 듯하다.

오어사 사적지에 의하면 신라의 4조(四祖, 자장, 혜공, 원효, 의상)를 모신 유적이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고려사에 의하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대선사(一然大禪師)가 59세 때(1264) 오어사에서 4년간 우거하면서 인흥사(仁弘社)를 주최함으로 신자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듯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저명한 고승 대덕들이 수도해온 도량으로 발전한 오어사에는 한때 문수전(文殊殿), 대웅전(大雄殿), 영산전(靈山殿), 나한전(懶漢殿), 약사전(藥師殿), 독조전(獨祖殿), 칠성각(七星閣) 등의 전각들과 원효암(元曉庵), 자장암(慈藏庵), 혜공암(惠空庵), 의상암(義相庵), 은적암(隱迹庵) 등의 암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어사 가람의 위치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현재의 위치는 조선 영조 17년(1741) 중건할 당시의 건물이며, 삼국시대의 건물지에 대한 고증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오어사 저수지가 1955년에 착공되면서 저수가 시작되고 옛 터에 대한 고증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저수가 시작되면서 가람의 건물 구조와 위치를 밝힐 수 있는 구조물들이 수몰된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발(旱魃)로 저수지 바닥이 들어났을 때 못 바닥의 계곡과 능선을 따라 석축과 건물지가 들어났다. 기와 조각은 물론이고 삼국시대 초기 가람의 전형적인 방형 초석이 다수 발견되어 상당수의 유적이 저수지가 축조되는 바람에 수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천곡사(泉谷寺)

영일만과 호미곶이 내려다보이는 천곡령 아래 학천 협곡, 현재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796번지에 있다. 영곡사(靈谷寺)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절 앞에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영천이 있었는데, 신라 선덕여왕이 이 물에 목욕하고 피부병이 완치되었으므로 자장율사에게 명하여 절을 세웠다고 한다. 천곡사의 창건설화에 의하면,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선덕여왕은 좋다는



● 천곡사 석정

약은 다 써봤지만 효력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아뢰기를 “동해안 천곡령이라는 고개 아래에 효험이 있는 물이 솟아나 세상 사람들이 일컬어 만병통치의 영험한 약수라 하오니 일차 가시어 목욕을 해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고 했다. 이에 선덕여왕이 행차하여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병이 완치됐다고 한다.

서라벌로 돌아온 왕은 천곡령 밑 영수의 효력에 감복해 자장율사로 하여금 절을 짓도록 하고 그 이름을 ‘천곡사’라 했다고 전해진다. 경내에는 선덕여왕이 목욕한 것으로 전해지는 석정(石井)이 남아 있으며 ‘장군수’라고도 불리었다.

웅성하던 사찰은 전란의 피해를 자주 겪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전란이 있을 때마다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폐사와 복원이 반복되면서도, 일제강점기까지 경내에는 13동의 건물이 있어 그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법당과 요사만 남아 있었는데, 현재 중창 불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천곡사에는 암자터가 남아있고 부도군이 있으며, 이 사찰에서는 조선시대 세조가 하사한 붓을 보관해 왔으나 한국전쟁 당시 건물이 불타면서 없어졌다 한다.

## 3) 법광사(法廣寺)

법광사가 있는 곳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375이다. 《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등에 이 절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절은 진평왕 때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왕명에 의하여 건립하였다. 신라 제26대 진평왕이 그 할아버지 진흥왕 10년(541)에 양나라에서 보내온 석가여래사리 23과를 받고, 불제자가 된 할아버지의 원당을 짓기 위하여, 원효대사에게 명하여 금당(金堂) 2층을 비롯하여, 525칸의 절을 짓고, 사리탑을 세워 석가의 사리를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 후 흥덕왕(興德王)3년(828년)

에 ‘향조(香照)’와 ‘원적(元寂)’이 재산을 희사하여 사리탑을 세우고, 사리 22과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법광사는 고려조에도 융성하였으며, 조선 영조 22년(1746년) 5층 석탑을 고치는 과정에서 신라시대에 봉안되었던 22과의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발견되어, 동함(銅函)을 만들어 탑 2층에 다시 봉안하였다. 그 후 고종 24년(1887년)에 3층만 남아 있던 석탑을 고치는 과정에서, 1750년에 건립한 ‘사리탑중수기(舍利塔重修記)’가 발견되어 법광사의 내력이 밝혀졌다. 탑지석은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웅장한 비학산 주봉을 뒤로 두고 앞으로는 동해가 멀리 보이는 높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가람터엔 각종 석조 유물이 남아 있다. 현재 절터에는 조선후기에 세운 석가불 사리탑중수비(釋迦佛舍利塔重修碑)가 남아 이 절의 내력을 전하고 있다. 절터는 거의 가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데 4가지 유물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석탑(石塔), 연화석불좌대(蓮花石佛座臺), 쌍두귀부(雙頭龜趺), 당간지주(幢竿支柱)가 그것이다.

이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석탑은 1968년에 도굴을 당했는데, 이 석탑으로 인해 지금까지 절터가 보존되고 절의 내력을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연화석불좌대는 절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대웅전의 석불을 안치했던 것이라 한다. 이 불좌대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현재 아랫부분의 복련하대(伏蓮下台)는 지상에 노출된 채 남아 있으나 서북쪽면의 연화무늬가 많이 깨어져 버렸다. 윗면에 3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8각의 중대석을 올렸다. 아랫부분 하대석은 지름 2m 20cm이고, 둘레가 7m 30cm나 된다. 그리고 중대석까지 현재의 높이는 1m가 조금 넘는다. 이러한 불좌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불좌 주변엔 많은 주춧돌이 박혀있어 이것은 불좌를 중심으로 건물이 조성되고, 그 건물 안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있는 위치도 다른 곳보다도 높고 절터의 거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광사의 중심 건물이 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불좌가 어느 시기에 어떤 연유로 파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불좌 위에 안치되었을 거대한 불상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탑 속에서 나온 탑지석(塔志石)과 석조유물들의 제작 수법으로 보아 이 절을 9C경 창건된 것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다.(탑지석 내용은 통일신라편 참조)

#### 4) 보경사(寶鏡寺)

보경사가 있는 곳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0-2에 있다. 이 절의 연기 설화에 의하면, 신라 제26대 진평왕 25년(602)에 일찍이 진(陳) 나라에 들어가 유학하고 돌아온 대덕 지명법사가 왕께 아뢰기를 “동해안 명산에서 명당을 찾아 진나라에서 유학 할 때, 도인에게 전수한 팔면보경을 묻고 그 위에 불당을 세우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고,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으며, 삼국을 통일하리라” 하자 왕은 기뻐하며 근신을 거느리고, 지명법사와 함께 동해안을 거쳐 북쪽 해안을 타고 올라가다가 해아현에 이르러 멀리 서북쪽으로 오색구름이 덮여 있는 산을 바라보고, 지명법사는 기뻐하며 왕을 모시고 그 곳으로 갔는데 바로 내연산이며, 산 아래 평탄한 곳에 큰 못이 있는데 명당이라 그 못을 메우고 팔면경(八面鏡)을 묻고, 그 위에 금당을 건립하고 절 이름을 보경사라 하였다고 한다.

### 5) 고석사(古石寺)

고석사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877에 있다. 묘봉산 아래에 있는 절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 줄기의 빛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사흘 동안 용상에 비치므로 이상하게 여겨 그 빛이 오는 곳을 찾아 이곳에 이르니, 한 괴석에서 빛이 나므로 그 자리에 절을 짓고 그 돌에 약사여래를 조각하여 모셨다고 한다. 지금 이 약사불은 암벽에 붙여 지은 건물 속에 모셔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셨다는 약사불은 최근의 불사를 통하여 통일신라 미륵불의상(彌勒佛倚像)임이 밝혀졌다. 마애불(磨崖佛) 위에 두껍게 덧칠한 석고를 벗겨냈더니 1300년 전 통일신라시대 불상(佛像)이 고색창연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고석사 보광전의 주불( )인 통일신라시대 미륵불의상  
왼쪽은 두껍게 석고를 덧칠했던 모습이고, 석고를 떼 냈더니 의자 위에 앉은 불상(오른쪽)이 나타났다.

고석사 법당인 보광전은 네모난 큰 바위의 한 면에 석굴 형식으로 불감(佛龕, 불상을 모셔 두는 방)을 조성한 뒤 부처님을 돈을새김(양각)해 모셨다. 그런데 이 불상과 바위는 석고가 두껍게 입혀져 있었다.

사찰 기록에 따르면 1923년 무렵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불상을 성형하기 위해 석고를 발랐다고 한다. 이 석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불상은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 질병을 고치는 부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 6) 해봉사(海鳳寺)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리 1066에 있다. 이 절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5년(636)에 창건하였는데 고려조에 퇴락하여 폐사되었다가 조선 명종조의 ‘상의선사(上宜禪士)’가 이 지방민들의 시주로 불당 13동, 승려 40여 인이 상주하는 규모로 중건 번성하다가 철종 말엽 방화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고 7·8동이 남아 있는데, 고종말년에 철취되었다.

## 7) 명월암( )

신라 선덕왕 5년(636)에 창건하였는데, 강사리의 명월리는 이 절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 절은 군마(軍馬)의 사육을 기원하는 사찰로 신라시대부터 춘·추로 왕의 사관(使官)이 와서 기원제(祈願祭)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 절에는 조선 단종조 생 6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이 일시 머물렀다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 4. 우리고장의 신앙

## 1) 산신 숭배 사상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민간에서는 천신, 일월신, 산신, 해신 등의 여러 신을 모시는 샤머니즘과 점술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 우리고장에 남아있는 산신숭배 사상의 증거는 운제산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기이편 남해 왕조편을 보면 신라 2대 남해 차자웅의 왕비인 운제부인에 관하여 “남해왕의 왕비는 운제부인인데 운제(雲梯)라고도 한다. 지금 영일현 서쪽에 운제산 성모가 있는데 가뭄에 여기에 기도를 드리면 감음이 있다”고 하여, 운제부인이 수호신 또는 산신격인 성모(聖母)로 오랫동안 숭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근년까지 산정에 4단제실의 성모당이 있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운제에 대한 다른 의견은 오어사의 자장암과 원효암사이의 계곡에 원효대사가 도력으로 구름다리를 놓고 건너 다녔다는 데서 운제(구름 雲, 사다리 梯)라고 하였다

고 한다. 어떤 의미든지 운제성모(雲梯聖母)로 인하여 운제산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운제산 정상에는 대왕암(大王岩)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어서 운제산을 대왕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 영일현 고적조에 “운제산은 현의 남쪽 10리에 있는데 암록(바위결)간에 샘이 있어 물이 용솟음쳐 나온다. 가뭄이 심한 해는 기우를 하면 곧 영험이 있다”고 하여 일찍부터 기우의 대상으로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제성모라 하여 산신을 숭배하던 사상이 지방민에 의해 자식 낳기를 빌고, 비 내리기를 비는 토속 신앙과 결부된 샤머니즘의 대상으로, 다시 대왕산으로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천이 고유한 민족 신앙으로 숭상되면서 애니미즘이 형성되고 나아가 토착적인 민족적 신앙으로 전승되어 샤아니즘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풍수사상과 결부되어 진산(鎭山)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운제산 정상에 있는 대왕암은 바위숭배 사상으로 신성시되었다.

## 2) 도교 전래의 단서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237호 석곽에서 출토된 대부직구호의 음각 그림은 고신라의 도교 전래를 알아 볼 수 있는 희귀한 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김창호 경주대 박물관장은 도교문화연구 13집에서 흥해읍 학천리의 대규모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대부직구호가 6세기후반 신라에 도교가 전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37호묘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횡구식 석곽묘이다. 이 묘에는 출토된 유물 중 목이큰항아리(대부직구호) 윗면에 음각된 그림은 이 고장에 도교 전래를 알려 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하며, 중국 한(漢)나라 때 6박(六博)이라는 놀이와 관련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은 도교와 관련된 유물로 알려져 온 중국 한나라 때 방격구구사신경과 유사한 점이 많고, 8마리의 상조(祥鳥)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서는 중국 전한시대(B.C 200~A.D 8) 도제 옥박전과 가장 유사하다고 추정했다.

또한 음각된 귀면의 모습이 안악 3호분의 기둥 등 고구려벽화 고분과 백제 금동봉래산향로에 나오고 있고, 불타는 것과 같은 첫인상은 일본 법통사 옥충주자와 비슷해 도교관련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후유총에서 나온 정(井)자 문양이 최근에 들어와 도교와 관련된 벽사 마크임이 밝혀져 500년 전후의 신라무덤에서 많이 발견되는 정(井)자 문양 토기와 관련지어 볼 때, 고 신라의 도교전래도 고구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5. 고분

우리 고장에는 고대 이 지방의 생활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고분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산재해 있다. 우리 지방의 고분들은 굴식돌방무덤, 돌방무덤, 석곽묘, 목곽묘, 토광묘, 옹관묘 등 다양한 양식의 무덤들이 있는데,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 고장의 무덤들은 주인이 확실한 무덤은 찾을 수 없고, 도굴이 심한 상태에 있다. 고분군은 전지역에 걸쳐 있으며, 각 종 개발 사업이나 도로 건설 공사 등으로 발굴이 이루어져 공개되는 고분들도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로 인해 그 동안 묻혀 있었던 우리 고장의 실체의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 1) 청하면 용두리 석실고분군

청하면 월포리 마을에서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1km쯤 가면 명안리, 상대리에서 흘러내리는 청하천(淸河川)이 있고, 이 청하천을 따라 1km정도를 가면 우측에 나지막한 구릉이 있다. 이 구릉지에 석곽묘(石槨墓)가 산재해 있다. 현재 개간과 도굴로 거의 흔적을 잃고 말았으나 숲속에 석곽이 노출된 채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 실측이 가능했던 1기(基)를 보면 폭 53cm, 길이 208cm, 깊이 46cm의 소형이었으며, 판상(판자모양)의 자연석을 여러 개 세워 측벽으로 삼았으며 개석(덮개돌)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 파편들은 뚜껑 있는 잔과 향아리 등의 부장품 조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수습되는 토기조각들을 보아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청하면 고현리 고분군

청하면 고현리(속칭 하방) 뒷산(달봉산, 해발 60m)일대에는 약 100여기 이상의 고분군으로 석실(돌방) 형태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분포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 도굴당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도굴로 내부가 드러난 구조를 보면 내부는 천석(川石)과 깎돌을 사용하여 물림 쌓기를 하였고 천장은 넓은 덮개돌로 덮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석실의 벽면이 천장 부근에서는 안쪽으로 경사지게 아치형으로 좁게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석실분은 고구려와 백제의 묘제로서 낙동강 서안의 김해, 고령, 동안에서는 현풍, 양산 등에서 알려지고 있으며, 6세기경 가야, 신라지구로 들어오고 신라에서는 7세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다. 형태는 장방형으로 연도(고분 입구에서 무덤방까지 이르는 길)가 있는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이다. 이 고분에서는 높은잔, 목긴향아리, 목짧은향아리 등의 토기조각들이 채집되고 있다.

### 3) 신광면 흥곡리 고분군

신광면 흥곡리는 마조리로 불렸을 때가 있었다. 흥곡리 고분이 위치한 곳은 기계면과 신광면의 경계로서 신광면 냉수리(속칭주막) 서쪽 편에 해당되는 곳이다. 흥곡리에서 서쪽 고개를 넘으면 기계면(화대)리가 되는 곳으로 옛날에는 냉수리에서 기계면으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는 곳이다. 경주에서 흥해읍과 청하면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인 조사 및 보고서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1년 경주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80기가 넘는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이 횡혈식석실분이며 수혈식 석곽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횡혈식석실분의 경우 그 내부 구조상 측실(부실)이 있는 것과 측실이 없는 것으로 대별된다. 측실이 있는 것은, 측실이 현문 안쪽에 설치된 것과 현문 밖 연도에 붙여서 설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흥곡리에서는 1966년 ‘진술선예백장(晉率善穢伯長)’이라는 동인(銅印)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곳은 토광묘 계통의 무덤유적으로 추정된다. 동인의 정확한 출토지는 발견자 권오술씨가 살고 있는 집의 우사(牛舍)로 당시 우사를 짓기 위해 정지작업을 하던 중 출토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권오술씨 집 부근 일대는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였다.

현재 이 동인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흥곡리는 큰 규모의 횡혈식 석실분이 많이 산재해 있어 주목되는 곳으로 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 4) 냉수리 고분

#### (1) 발굴경위

1990년 3월 경상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한 기계~신광 간 925번 지방도로 확장공사 도중 영일군 신광면 냉수 1리에 소재한 석실고분의 봉분과 석실 일부가 중장비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1990년 3월 12일 국립경주 박물관 직원이 이 일대 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강동면 단구리에 거주하는 산림감시원 정연복씨로부터 고분이 파괴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로 인해 상당한 부분이 파괴되어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현지조사 결과 이미 도굴은 되어 있었지만 석실(石室)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구조와 봉분들의 남은 상태가 양호하며 현실(玄室)내부에 유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당시 영일군 문화공보실에 도로공사의 중단과 이에 따른 신속한 유적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발굴조사의 필

요성을 통보한 후 1990년 10월 30일에 발굴조사 과정에서 예상 외로 고분의 규모가 크고 내부구조도 복잡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조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으며 조사는 연속되지 못하고 3차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다. 1, 2차 조사에서 주로 석실 내부인 현실과 축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제3차 조사에서는 봉토 및 연도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992년 6월 10일에 시작된 발굴조사는 약 2년만에 완료되었다.

## (2) 유적의 위치와 환경

기념물 제95호로 지정받아 복원된 냉수리 석실분이 있는 곳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냉수리 산 78-4번지이다.

냉수리 고분이 있는 곳은 기계면과 신광면의 경계지로서 북쪽과 남쪽으로 넓은 들이 펼쳐지고 특히 안강과 기계 등의 내륙지역에서 동해안으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조선시대까지도 경주에서 흥해읍과 청하면으로 나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따라서 주위에 펼쳐진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 일대는 많은 선사 및 역사시대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고분의 입지는 포항의 서북쪽에 있는 도음산(384.6m)의 서쪽 능선에 해당되는데 신광~달성간 도로가 이 능선 일부를 깎아내고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용천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능선은 지금의 저수지 쪽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와 얇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재 이 골짜기(지금의 용천저수지)의 좌·우측 해발 50~100m 안팎의 능선과 정상부에는 대·소형의 봉토분이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어 있다.

특히 이 고분과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건너보이는 산 정상(속칭 태봉)에는 대형의 봉토분이 있다. 이 지역의 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인 조사 및 보고는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9년 냉수리 신라비가 발견되면서 부근의 유적을 지표 조사한 내용이 학계에 소개된 바 있었다. 그리고 발굴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1991년 경주문화재 연구소에서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86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이 황혈식 석실분이며 수혈식 석곽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일대에 조영된 고분들은 도음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흥해 옥성리 고분군, 동남쪽으로 흥해 대련리 고분군, 남쪽으로 경주 안계리 고분군 등 많은 중소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삼국시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가 동해안과 북방으로 진출하는 길목인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이 고분군을 조성

한 집단들이 일찍이 신라에 복속되면서 신라 확장의 교두보(橋頭堡)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 고분의 성격과 출토유물

1995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간한 《냉수리 고분》의 집필자였던 손명조씨는 “본 발굴조사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긴급조사였고 조사기간도 연속적이지 못하여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고, 또한 조사 중 고분의 보존조치가 취해져 측실 벽의 구성과 연도의 축조방법 조사, 봉토 내부의 조사 등을 완전히 실시되지 못하여 조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냉수리 고분이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 냉수리, 흥곡리 일대의 고분과 함께 흥해와 안강을 연결시키는 지점에 자리 잡아, 신라 세력이 북부지역으로 팽창하는 당시의 해안과 내륙을 연결시키는 군사·지리적 중요한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석실규모로 보면, 현재 영남지역에서 정식 발굴조사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 가운데 가장 큰 것이며 그 구조에 있어서도 측실이 달려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러한 측실 구조는 현재 한반도 남부에서는 조사된 예가 없고, 이 일대 고분에서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동해북부 지역과 동해안의 조사가 미진하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측실구조가 고구려 석실고분에서 나타나는 형식임을 보아 고구려와 관련된 세력이 이 지역까지 주둔하면서 이 지역의 재지세력(在地勢力)과 융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묘제로 보인다. 즉 벽면축조기술, 회미장, 측실구조, 중앙연도의 요소는 고구려 지역의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측실의 성격이 부장공간(副葬空間)으로서의 성격이며, 봉토(封土)에 있어 적석을 2중으로 하고 있는 점은 경주지역 묘제인 부곽의 성격과 봉토적석의 개념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냉수리 고분이 경주 지역에 현재 조사된 횡혈식 석실분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횡혈식 석실분의 유입경로는 낙동강 유역에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냉수리 고분으로 고구려와 관련된 북부지역으로 부터의 새로운 유입경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유입단계는 경주 중심이 아닌 경주 외곽지역에서 먼저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고분에서는 뚜렷한 추가장의 흔적과 묘도부가 확인되었다. 추가장의 흔적은 연도폐쇄부 토층과 연도개석의 재사용 등에서 확인되었고, 특히 묘도부의 확인은 당시의 장례의식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출토유물은 현실이 도굴된 후 교란된 상태로 남은 유물만 있었는데 관식편, 영락, 금제반지, 은제 과대편, 삼루환두식, 호록금구, 마구류 등 출토된 유물의 질과 규모로 보아 고분의 피장자는 이 지역 일대의 수장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덤 성격에 있어서는, 경주세력과의 깊은 연관성을 엿볼 수 있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경주지역 토기 형식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유물은 경주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출토되어 석실묘의 축조 집단의 성격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출토된 토기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 고분의 최초 매납시기(埋納時期)는 6세기 전반 경이며, 이후 두 차례 이상의 매납이 행해졌으며, 마지막 매납은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냉수리 고분 일대는 고분 구조의 특이성과 함께 신라지역에서 황혈식 석실분이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삼국시대의 포항 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고분은 1994년 4월 16일 기념물 제95호로 지정 받아 2년 만에 복원공사를 거쳐 복원되었다.

## 5) 흥해읍 옥성리 고분군

이 고분군은 1994년에는 국립경주박물관, 1995년에는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고장에서 처음으로 대단위 분묘군을 정식 발굴조사 절차를 거쳐 진행된 조사이다.

### (1) 조사과정

옥성리 유적은 1993년 11월경 당시 영일군의 흥해읍 옥성리 산12-3번지 일원에 흥해읍 청사 및 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하던 중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음을 경주박물관에 하역찬씨가 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제보에 접한 경주박물관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원삼국시대의 고분 유구(유적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흔적)가 중장비에 의해 많은 부분이 파괴 유실된 상태였으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약 800여 평 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 후 경주 박물관에서는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여 영일군으로 하여금 보존 조치를 취하게 하고 공사로 인해 파괴된 유구의 수습 발굴조사와 공사 중단된 나머지 공사 구역의 발굴조사는 1994년 2월 21일에 착수하여 7월 29일에 종료하였다.

이 조사에서 원삼국시대(3세기)부터 삼국시대(6세기)에 이르는 고분 138기를 조사하여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토기, 철기, 장신구 등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옥성리 고분군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완료 후 경주박물관에서는 옥성리 고분군의 분포를 파악하여 유적의 파괴에 대한 심각함과 공사구역 주변의 유적 분포지역에 대한 보존, 보호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파괴 유구에 대한 수습 조사와 확대한 공사완공에 필요한 구제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발굴조사는 포항시로부터 의뢰받은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이 1995년 7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150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 (2) 유적의 위치와 환경

발굴 유적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1차 발굴조사지는 포항시 흥해읍 옥성2리 산3번지이고, 2차 발굴조사지는 옥성리 산12번지 일대이다. 흥해읍의 서쪽, 해발 50m 내외의 얇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봉안산(鳳眼山) 여러 개 구릉들 중에 흥해공업고등학교가 자리한 신당골과 흥해 중학교서편 갭신골 사이에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 전체이다. 유적 북쪽의 작은 구릉(속칭 신미산)에까지 유적이 확인되고, 특히 조사구역의 동쪽 능선아래 부분에는 봉분이 잘 남아 있는 고분과 도굴로 인해 파괴된 석관묘 등의 유구가 밀집 분포되고 있다. 제1차 발굴조사 지역은 동쪽 능선 가운데 부분의 북사면으로 전체 고분군에 비해서는 주변지역에 불과하였다. 제2차 조사지역은 신당골과 갭신골 사이에 구릉 정상부와 능선상에 있는 유적의 일부였다.

유적의 주변에는 동쪽으로 인접한 7번국도 건너 낮은 구릉에 남미질부성이 있고, 북쪽으로는 청하 고현리 고분군, 북동쪽으로는 칠포리 곤륜산 기슭의 바위그림, 또한 서쪽으로는 신광 냉수리 고분과 고분군, 냉수리비 등이 있고, 남쪽에는 흥해읍 대련리 고분군, 학천리 고분군 등이 있다.

## (3) 1차 조사 지역(옥성2리 산3번지 일대)-국립박물관 조사지역

조사한 유구는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분묘 138기였다. 조사된 분묘의 구조는 목관묘(2기), 목곽묘(112기), 적석목곽묘(6기), 석곽묘(14기), 옹관묘 등이었으며, 옹관묘는 단구식과 합구식 두 가지가 조사되었다. 무덤의 중복관계와 부장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목관묘 - 목곽묘 - 적석목곽묘 - 석곽묘로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된 138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토기, 철기, 금속제와 옥제품 등의 장신구류들이다. 토기류는 3세기~6세기에 이르는 토기 변화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토기는 오리형 토기, 잔, 항아리,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1쌍의 오리모양 토기는 다리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철기류는 무기류, 공구류, 농구류, 의기류, 마구류 등 여러 가지 용도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시기와 기술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철기의 종류는 무기류로 몽골발형투구, 비갑, 철도, 도자, 철촉 등, 공구류로 철부 등, 의기류로 유자이기, 농구류로 낫, 따비, 쇠스랑, 삽발 등, 마구류로 등자, 재갈, 행엽, 운주 등이 출토 되었다.

특히 철제 농기류의 출토는 이 시기 이 고장에서 금속제 농기구의 사용이 가능한 지 배층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장신구는 금동제 귀걸이,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옥, 토제 목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금동제 귀걸이는 세환형, 태환형이 있고, 수정제 다면옥은 그 크기가 0.8~3.0cm로 다양하며, 토제 목걸이는 토제 곡옥이 장식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였다.

#### (4) 발굴조사 성과 및 의의

대단위 분묘군이 발굴조사된 것은 흥해 옥성리 유적이 처음이었다. 조사된 유구는 목관묘,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 3세기~6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묘제가 확인되어 이 지역 일대의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분묘 변천과정 및 묘지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및 장신구류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경주 일원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과 유사하나, 그 제작 수법과 세부적인 형태에서 차이가 있어, 흥해지역 토기의 특성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철기류 무구, 공구, 마구, 의기류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구 및 공구로는 칼, 도끼, 화살촉, 낫 등이 있고, 마구류로는 제갈, 발걸이, 말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장신구류는 금동귀걸이, 각종 옥류, 토제 목걸이 등 주요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흥해 옥성리 고분군의 발굴을 계기로 흥해 지역은 원삼국기에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집단이 있었고, 삼국기에 접어들어 경주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굴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3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목관묘,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 다양한 묘제가 좁은 지역에서 복잡한 중복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원 삼국기에 존재하였던 소국이 신라의 확장으로 병합되어 갔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유적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인근에 소재하는 흥해 칠포리 바위그림군(청동기시대 기원, 전후)과 신광 냉수리비와 석실분(6세기 대) 등을 비교하였을 때는 문화유적상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흥해 옥성리 유적이 이 두 유적의 사이의 공백기(3세기~6세기)에 위치함으로써, 흥해 지역 역사에서 공백기로 남아있던 시기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5) 2차 조사지역(흥해읍 옥성리 산 12번지 일대)-영남문화재연구소발굴조사지역

이 조사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대·소형 목곽묘, 옹관묘 등 분묘유구(墳墓遺構) 120기가 밀집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곽묘로 확인된 유구수는 116기, 옹관묘가 3기, 기타 1기였다. 옹관묘 3기 중 1기는 소형의 합구식(合口式) 옹관(甕棺)이었다.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첩저호, 조합식 우각형 파수부호, 유개대부 장경호, 유개직

구호, 로형토기(盧型土器), 단경호, 적색연질토기 등 토기류와 환두대도(煥頭大刀), 철검, 철모, 철촉, 제갈, 갑옷 등 철제 무구류와 철검, 단조철부, 주조철부, 따비, 쇠스랑, U자형 삽날 등의 농기류 및 마노제 다면옥(多面玉), 수정제 다면옥, 곡옥, 유리제 다면옥, 유리구슬 등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고고학적 자료는 원삼국시대(3~4세기) 목곽묘 및 토기의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소형 목곽묘가 밀집 분포되어 있고 선·후 관계가 분명한 중복 유구가 많아 이 시기의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목곽묘는 3세기 전반기의 대·소형 목곽묘와 4세기 후반기까지의 유구가 동시에 확인되었는데, 유구는 3세기 빠른 시기의 것이었다.

소형 목곽묘는 유구의 구조는 비슷하나 출토유물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깊이가 비교적 깊으며, 부장 유물이 빈약한 것과 깊이가 얕고 부장유물의 수가 많은 유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대형 목곽묘는 모두 8기가 조사되었는데, 깊이는 비교적 깊고, 부장 유물은 소량이며 고식의 도질토기가 출토되었다. 고식 도질토기가 출토 되는 대형목곽묘는 무덤 양식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다량 출토는 이 지역에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추정하게 해주는 실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된다.

## 6) 흥해읍 학천리 고분군

### (1) 조사과정

1998년 포항시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계획하고 같은 해 4월부터 벌목과 임시 진입로 개설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국시대 석곽묘의 매장사실이 발견되어,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사업 지구내의 전면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고분군의 밀집 유적임이 밝혀졌다. 이어서 1998년 7월 15일에서 8월 25일까지 유구분포와 유적성격 파악을 위한 시굴 조사를 실시한 후 분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의 허가 하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총 436기를 확인하여 그 중 196기를 조사하였다.(1999. 6. 현재)

### (2) 조사내용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를 위시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응관묘, 횡구식석실분 등의 무덤 외에 고려시대 건물지외

기와요지 등이다.

I 구역에서는 무덤 273기, 건물지 3동, 와요지 1기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석관묘 5기, 목곽묘 24기, 옹관묘 3기, 석곽묘 120기, 민묘 17기 등 무덤 169기와 건물지 3동이 조사되었다.

II 구역은 무덤 158기, 건물지 3동이 확인되었고, 그 중 목곽묘 3기, 석곽묘 20기, 민묘 1기를 조사하였다.

이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마제석기류 3점, 토기류 668점, 철기류 232점, 장신구류 12점, 토제품류 2점 등 917점이었다. 이외 건물지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류는 노형기대, 파수부호, 원저단경호, 단구소호, 양이부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대부완, 발 등이고, 와질과 토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철기류는 환두대도, 철검, 철모, 철촉, 유자이기, 철부 등이 출토되었는데 철모의 비중이 가장 높다. 출토 유물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237호 묘’에서 나온 대부직구호의 외면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토기의 태토 및 문양의 장의가 처음 보는 종류였다.

이 유적지에서는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동기시대의 석관묘를 비롯하여, 고대의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석실분, 옹관묘, 석곽옹관묘 등 다양한 무덤 400여 기와 고려시대의 건물지, 와요지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묘들이 확인되어 묘제변천과 유물의 편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출토 유물은 마제석기류,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이미 1,000여 점을 상회하고 이 중에는 당시 이곳 집단의 문화와 생활상을 반영해 주는 귀중한 유물도 있었다.

특히, 출토 유물 중 6세기에 해당되는 선각으로 시문된 2점의 토기는 당시 생활과 문화상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 7) 흥해읍 대련리 고분군

포항시가 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 유적의 현상을 파악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막고, 보존 대책을 세우며, 매장 문화재를 발굴·정비하는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하여 지표조사 계획을 세우고, 동해문화연구소에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제1차 연도(1996년 12월부터 1997년 3월말)에 대련리 고분군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대련리 고분군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1리의 산이다. 대련리 고분군이 있는 지역은 포항시 외곽도로(순환도로)의 하나로 대련1리에서 흥해읍 성곡리로 빠져 나가는 신설된 도로변에 있다. 이 도로가 신설되면서 도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 능선의 일부를 깎아내면서 생긴 남은 지역의 경사진 곳이다.

이곳의 위치는 옛길이 사방으로 나있는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대련리의 서쪽 편에 있는 능선이다.

남쪽으로는 기계·경주로 통하고, 동쪽은 포항, 서쪽은 신광면 냉수리, 북쪽은 흥해읍 학천리로 통한다. 현재 들어난 고분군은 고도 50m의 능선에서 시작되어 이 능선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네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근에 있는 고분군은 옥성리, 초곡리, 학천리 고분군이 북쪽에 있으며, 서쪽에는 냉수리 고분군이 있다.

모두 네 곳의 고분군에서 석곽묘 2기, 석실묘 9기, 석곽묘군 3곳을 확인하였다. 유적의 대부분이 도굴 당하거나 파괴되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제Ⅱ지역에서의 석실분은 특히 도굴이 심하여 훼손이 많이 되었다. 제7호 석실분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곳의 위치는 대련 3리 석지골 뒤편 해발 114m의 산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을 따라 해발 114m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석실분은 천장돌을 위로부터 들어내는 방법으로 도굴을 당하였다. 현재 천장 덮개돌이 벽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천장돌로 추정되는 이 돌의 크기는 긴 변이 130cm, 짧은 변이 97cm, 두께는 30cm였다. 전체모양은 큰 타원형이다. 들어난 석실의 크기는 동서로 220cm, 남북으로 200cm이며, 동쪽 벽의 높이는 100cm이다. 일부 남은 석벽을 보면 깎판석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쌓아올렸다.

수습된 유물은 석곽묘 부근에서는 뚜껑 있는 굽다리접시, 목 짧은 항아리, 목긴 항아리, 조각들이 수습되었고 석실분 주변에서도 같은 형태의 토기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 8) 대송면 대각리 돌덧널무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소재하는 대각리(당시는 영일군 대송면) 돌덧널무덤은 1992년 11월 대송면 예비군 중대가 진지보수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삼국시대 토기편이 노출되자 소속 중대원인 ‘이정권’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박물관에서는 즉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현장에는 325cm×295cm, 깊이 85cm 크기의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고 구덩이의 한 변에 삼국시대 토기편과 돌덧널무덤으로 추정되는 벽석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유구가 발견된 곳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유물을 오랫동안 현장에 둘 경우 도난, 유실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굽다리 접시와 항아리 등을 수습한 뒤, 이러한 현장 상황과 함께 조사의 필요성을 당시 영일군에 통보하여 긴급 수습조사가 이루어 졌다. 발굴조사는 199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7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54-2번지에 위치한다. 조사 지점은 영일군 오천읍과 대송면에 걸쳐 있는 운제산(481m)의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끝 부분에 해당된다.(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수원 김씨 문중이다) 그런데 조사 기간 중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지점 위쪽의 능선 일대에도 수 백 기의 무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대부분은 도굴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무덤의 구조는 이번에 조사한 4기와 마찬가지로 돌덧널무덤들이 주류였다. 따라서 조사지점은 이 고분군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적 바로 옆에는 ‘영일만 온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 길을 넓힐 때 민가(현재는 민가가 없으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6.25 당시까지 발굴지역에 집이 있었다고 한다)를 짓는 과정에서 유적의 일부가 잘려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동해안(영일만)과는 불과 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지역 일대에는 조사지점 앞을 흐르는 소하천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들(일명 고래들)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 들은 4km 정도 떨어져 있는 형산강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이 유적과 마주하고 있는 능선상에 현재 포스코 제3철강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을 건설하기 위해 터 닦기 공사를 할 때 많은 토기조각들이 나왔다는 주민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도 큰 규모의 고분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3호 돌덧널무덤의 바닥에서 돌화살촉편이 출토되었고, 교란토를 걷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무문토기조각이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에 청동기시대의 유적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 파괴된 돌덧널무덤을 중심으로 9.6m×6.2m의 발굴 구역을 설정한 뒤 먼저 표면의 교란토를 걷어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3기의 무덤이 추가로 확인되어 모두 4기를 발굴조사 하였다. 발굴구역의 중앙을 종횡으로 가르는 십자형 독을 남기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상부층이 이미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유실된 상태여서 봉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조사는 긴급 수습조사인 관계로 조사지역이 매우 한정되었고, 자연적인 유실, 교란 등으로 유구가 심하게 파괴되어 그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무덤은 4기 모두 활석을 이용하여 만든 반 지상식의 돌덧널무덤이었다. 축조 방법은 먼저 구덩이를 얇게 판 뒤 구덩이 벽에 바짝 붙여 덧널을 만들었는데, 커다란 활석을 세워 벽체를 만든 뒤 그 상단에 다시 납작한 돌들을 얹혀 쌓아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뚜껑돌을 덮었다. 이러한 축조 기술은 무덤의 구조가 지상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경주 일원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비슷한 시기의 고분과 공통된다.

이 유적의 연대는 반지상식의 무덤구조·토기 형식 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략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토기로는 굽다리접시·연질합·굽다리사발·굽다리목항아리·항아리 등 비교적 다양하게 출토되었으나 철기는 매우 적은 편이다. 기종별로 보면 굽다리 접시는 몸통이 직선화된 소형이며, 1단굽 구멍의 굽다리 접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굽다리 목항아리는 목의 무늬가 사라지고 단이 나누어져 있는 아가리이며, 항아리는 아가리가 수평으로 바라져 있다. 토기의 무늬 구성에 있어 인화문은 보이지 않으나 무늬 새김이 매우 조잡하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경주지역의 통일기 토기와 거의 동일하다.

### 9) 대송면 대각리 고분군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이 대각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포항시가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계획을 세우고 제1차 연도인 1996년 12월 말부터 1997년 3월 말까지 동대해문화연구소가 지표조사를 하였다. 이 지표조사 결과 대각리에는 6곳의 고분군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분군은 제3고분군이였다. 대각 제3고분군 지역은 조사의 편의상 다시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대나무 숲 능선에 있는 ‘가’ 지역 고분군은 해발 30m의 높이이다. 이 주변에 많은 토기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나’ 지역 고분군은 다시 석곽묘군과 석실묘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고분군이 있는 구역은 행정구역상 포항시 남부 대송면 대각리이며 경주 박물관에서 긴급구제 발굴을 한 대송면 대각리 돌덧널무덤 서북쪽 능선에 있는 것이다. 이 고분군이 자리 잡은 곳은 해발 40m~60m 지점이다.

‘가’ 지역 고분군은 죽림식당 뒤편 대나무 숲 능선에 있다. 이 주변에는 많은 토기 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 고분군이 있는 곳은 30m의 능선이다. 우거진 대나무 숲 때문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주변에는 약 20여 기 이상의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 지역 고분군 중에서 석곽묘군이 있는 곳은 1994년 경주박물관이 주관하여 긴급구제 발굴을 하였던 장소의 뒤편 산록이다. 구제 발굴 뒤편 능선에는 ‘수원김공’의 묘가 있는데 이 묘를 기준으로 뒤편의 능선이 모두 고분군이다. 이 유적의 면적은 약 2,025㎡가 된다. 이 지역에는 크게 6개의 석곽묘가 유구를 드러낸 채 있으며 주변에는 많은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이 지역의 유적들은 고의로 파괴하였던 부분도 있고, 식목사업으로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석곽묘군 외에 깊이에 따라 다른 묘제 형식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수는 적어도 100여 기 이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나’ 지역 중에서 석실묘군이 있는 곳은 석관묘군이 있는 능선의 남쪽 산록 좁은 지역에 있다. 이곳에도 석관묘와 석실묘가 섞여 있는데, 석실묘가 주를 이룬다. 이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석실묘만 13기가 되었다. 대부분 도굴 되었으며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었다. 이 지역에서 수습되는 토기류는 항아리 조각들이었다.

### 10) 오천읍 인덕동 고분군

포항시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계획에 따라 동대해 문화 연구소가 용역의뢰를 받아 96년 12월 말부터 97년 3월 사이에 조사하였다. 인덕동 고분군은 지표조사 시 가장 먼저 조사한 지역이었다. 인덕동 고분군도 조사 대상지역이 넓어 두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유적이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산이다. 인덕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하였을 때 남쪽으로는 오천읍 원리를 경계로 하여 오천서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다가 서편으로 올라가면 서원고개의 정상부에서 50m정도 내려간 남쪽 부분의 경이 100m정도의 경사가 극히 낮은 구릉성 지대에서 종합제철 독신료가 있는 북쪽 산록까지 전체를 포함한다. 이곳의 고도는 60m~80m이며 조선조에 이르러 원리지역에 ‘서원’이 있었을 때 붙여진 이름인 서원재로, 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정상부 남쪽도 해당한다. 여기서는 인덕동 제2고분군에 관해서만 기술한다. 이 고분군이 있는 위치는 서쪽에는 호동고분군이 있고, 동쪽으로는 고현토성과 마주하며 토성 건너편으로는 냉천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지점으로 토성의 외부 북서쪽 끝 부분의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고분들은 도굴이 매우 심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봉분이 모두 파헤쳐진 것, 고분의 덮개돌이 드러난 것, 석벽이 모두 드러난 것, 연도가 교란된 것, 석벽이 모두 해체되거나 허물어져 내린 것 등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굴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굴구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래된 듯하다. 이곳에서 고분의 일부라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석곽묘 6기, 석실분 2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고분군이 있는 면적은 10,000㎡, 범위 안에 있는 고분의 수는 5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11) 대송면 호동 고분군

포항시 남구 대송면 호동고분군에 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있었고 요약보고도 나왔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져 조사보고서가 나온 동대해문화연구소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기록한다. 동대해문화연구소에서는 포항시의 용역의뢰를 받아 오천읍에서 지표조사가 가능한 전 지역을 조사하기로 하고 가능한 지역의 조사의 편의에 따라 구분하면서 인덕고분군 다음 차례로 호동고분군을 조사하였다. 이 고분의 실제조사 기간은 1996년 12월부터는 16일간이었다. 호동고분군을 지표조사하면서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된 까닭은 지역도 넓지만, 도굴이 매우 심하고 유구들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동리 고분은 원동고분군에서 270° 방향에 있는 90m 고지의 산정상을 향하여 곧게 나간 산길을 따라 400m를 나아간 지점부터 행정구역상 포항시 대송면 호리산 18번지가 중심지역이다. 호동리 고분군은 70m~90m의 고지가 되는 산 능선부를 가로지르는 산길 남·북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울창하게 들어서 있는 송림과 대나무 숲이 오랫동안 이 곳의 고분군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근년에 들어 제2공단이 조성되고,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훼손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도굴 정도가 매우 심하고 최근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그 피해가 크다. 이 지점은 옛날부터 고현성에서 호동리로 나아가는 산길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95m고지에서 보면 200° 방향 남쪽으로 고현성을 휘돌아 나가는 시내와 계곡이 연이어 있고, 동쪽으로는 원동 숲이 있으며, 냉천이 흘러가는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고현성의 서편에 해당하는 고지성 요충지로 생각된다. 인근에는 동쪽에 고현성, 서쪽에 영일읍성지, 연일읍성, 남서쪽에 대각리 고분군 남쪽에 오어사가 있어 유적과 사적이 연이어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호동리 고분군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지점마다 웅단식으로 도굴이 이루어졌다. 도굴된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고분의 양식은 주로 대형의 석곽묘나 석실분, 소형 석곽묘, 토광묘 등이 섞여 있었다. 발굴이 이루어지면 다른 형식의 묘제방식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석실분의 봉토지름은 6m 정도였으며 이 지역의 고분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백 기에 이를 것이다. 석실이나 석곽에 이용되는 돌은 천석(넷가돌)을 이용하고 할석을 사용하여 벽면을 쌓은 것도 있다. 이곳 고분의 축조 시기는 하한선이 6세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실히 들어난 고분은 석곽묘 6기, 석실 5기는 모두 대형이었다. 그리고 봉분의 흔적을 잃어버려 규모를 알아볼 수 없었고, 도굴로 인해 노출된 몇몇 파괴된 석곽을 통해서 볼 때 긴 벽이 2m 내외되는 석곽묘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 고분 주위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주로 토기 조각들로서 경질의 것이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여기에서 수습된 토기의 종류로는 잔, 향아리 등 삼국시대의 토기이다. 이 토기의 특징은 토기의 기벽이 얇고 소성도가 높은 경질이며 표면은 규질성분이 녹아서 광택을 내는 것이 많으며, 수습된 굽 달린 잔에서는 다리에 1단 내지 2단의 창이 뚫였고 2단 투창의 경우도 다리의 높이가 작고 낮은 작은 것들이었으며 날카로운 격자문을 토기 측면에 새긴 것도 있다. 고배 뚜껑에 부착된 꼭지가 모두 단추형 이었다. 문양은 판문, 원문, 종선문들 이었고 다리선은 단조로운 편이었다.

이곳에 고분군을 축조한 사람들은 구릉지에 토성을 쌓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곳 고분군과 토성은 시대적으로 같은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12) 동해면 도구리 고분군

동해면 도구동 예비군훈련장 동쪽의 나지막한 아산의 능선과 동서사면 일대에는 수십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나 거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도굴·파괴되었고, 석곽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냇돌과 덮개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판석들이 토기 조각과 함께 사방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봉분은 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도굴로 인해 노출된 파괴된 석곽을 통해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노출된 석곽을 보면 길이 190cm, 폭 50cm, 깊이 45cm 가량의 석곽으로서 내부 바닥에 잔자갈을 깔 흔적이 있으며 사방에 흩어진 토기조각들로 볼 때 대송면 호리 고분과 거의 동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 잔, 항아리, 접시, 쇠뿔형손잡이 등이 채집되고 있다.

## 13) 동해면 중산리 고분군

중산리 마을 뒤의 특곡의 경우 좌우 능선을 따라 수백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굴과 파괴로 인하여 거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으며 석곽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냇돌과 덮개돌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판석들이 토기편과 함께 사방에 흩어져 있으며 봉분은 거의 흔적을 잃어버려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도굴로 인해 노출된 몇몇 파괴된 석곽을 통해서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긴 벽의 크기는 2m 내외 짧은 벽의 크기는 50cm 내외이며 깊이는 45cm 내외로 소형 석곽이 주류를 이룬다. 주변의 토기 조각으로 볼 때, 장경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등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장군형 토기라든가 철제마구가 보이며 높은잔(고배) 뚜껑의 손잡이에 투창이 있는 것도 채집되고 있다.

## 14) 기계면 학야리 고분군

이 고분군이 있는 곳은 경주시와 남쪽으로 경계를 이루는 아래산의 북쪽자락에 해당하며 행정 구역상 포항시 기계면 학야리에 자리 잡고 있다. 학야리 학계 마을의 동편으로 나있는 소로를 따라 산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소로의 끝에 민가 한 집이 있으며 주변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적은 해발 125m 내외 과수원이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석곽의 벽석재로 추정되는 할석들이 여러 곳에 노출되어 있다. 정수장 부지의 남동쪽 끝에 해당하며 학야리에서 확인된 유적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 이 고분군은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학야리 고분군의 북쪽 아래산의 북편 해발 107m의 산 능선에도 고분군이 있다. 정상부에 석실의 벽석이 노출되어 있으나 봉토는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정수장 북동쪽에 해당한다.

### 15) 학야리 유물 산포지

기계면 학야리의 남쪽산 사면에 형성된 평평한 구릉상에 위치하며 정수장 부지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학야리 고분군 서면에 위치하며 채집유물의 성격 등으로 크게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A지구는 정수장 부지의 남쪽이며, 해발 고도 120~100m 정도이다. 현재는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유적의 가운데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학야 앞들 전면에 위치한 고인돌 축조 집단과 관련이 있는 생활 유적으로 생각된다.

가장 근접해 있는 고인돌은 성산골의 아래쪽에 2기가 위치하며, 이 유적과는 100m 이내의 거리이다.

B지구는 정수장 부지의 중간에 해당하며 대부분 조립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고배, 호, 조각들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유적 분포지로 생각된다.

C지구는 정수장 부지의 북쪽편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수의 토기편 및 자기편이 수습된다.

특히 고식 도질의 단경호편 등이 채집되어 B지구보다는 이른 시기의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학야리 유물 산포지는 1997년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시에 확인되었다. 학야리 부근의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조사의 편의상 3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된 것이나 실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이 지역 고분군의 특성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 16) 포항 환호동 고분군

이 환호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포항시에서 조성할 예정인 “해맞이공원” 부지 내에서의 지표조사였는데, 고분군이 있는 곳은 환호동 설머리 마을의 북쪽 능선의 정상은 해발 72m이다. 이 정상부에서 북편으로 여러 갈래의 능선에 뻗어 있으며 그 중 대밭골과 서늘골 사이에 뻗어난 길다란 능선의 서편 사면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고분은 밭 가운데 돌출되어 있고 봉토 외곽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은 6~7기 정도이며, 규모는 직경 10m 내외이다.

포항 환호동 고분군은 1997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였다. 환호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지표조사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분군 이외에 조선백자 조각들도 수습되어 이 지역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고분군이 조성되었던 곳으로 추정되었다.

## 17) 포항 용흥동 신라묘

포항 용흥동 신라묘는 2006년 9월 25일 ‘용흥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 구간의 구릉 절개면에서 토기가 노출되었다는 익명의 시민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음날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절개면에서 대부장경호편을 확인하였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배, 뚜껑 등 10여 점의 토기가 출토되어 삼국시대 분묘로 추정되는 유구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6년 10월 2일에 신고지점에 인접한 지역에 도로 응벽공사를 위한 추가 굴토가 있음을 통보받고 현장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입회 결과 응벽설치지점 안쪽으로 유구가 계속 연장되는 것을 알게 되어, 10월 4일 포항시에 이 지역에 대한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발굴조사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를 넘겨 2007년 4월과 5, 6월 2차에 걸쳐 실시하여 매장주체부 전체를 발굴하였다. 발굴결과 유적은 주부곽식(主副槨式)의 세장방형목곽묘(細長方形木槨墓)로 토기 42점을 비롯하여 금동제대관편(金銅製帶冠片)과 금동제삼엽문환두대도(金銅製三葉文環頭大刀) 등 총 4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을 통해 본 피장자의 성격은 목관 구역에서 나온 입식(立飾)을 붙인 금동제대관, 금동제삼엽문환두대도, 수식, 세환이식(귀걸이), 추정 금동제소환, 금동제허리띠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장신구의 부장조합으로 보아 용흥동 무덤 피장자는 남성인 지방의 수장층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세품이 부장되는 지방의 무덤은 대구, 경산, 창녕, 양산 등지에서만 확인되며 특히 금동제대관이 착장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흥해, 연일 지역을 포함한 포항 지역에서는 아직 출토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높은 위계를 보여주는 장식품이 부장된 용흥동 무덤 피장자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정치·사회적 힘을 가진 권력자였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세품 등이 경주에서 지방으로 분여되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라 중앙의 영향 하에 있는 지역 수장으로 볼 수 있다.

문헌사학계에서는 6세기 초부터 중앙에서 지방에 지방관을 점진적으로 파견한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은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요 교통로에 위치한다. 따라서 중앙의 영향력이 일찍 미쳤을 것이고 지방관도 이른 시기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굴 결과 이 무덤은 주곽과 부곽을 일렬로 나란히 배치한 세장방형의 주부곽식 목곽묘로 밝혀졌다. 크게 묘광을 파고 주곽과 부곽 사이에는 흙과 돌로 격벽을 만들었다. 부곽 북쪽은 도로공사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전체 묘광의 남아있는 크기는 길이 4.4m, 폭 1.5m였다. 주곽은 길이 3.45m, 폭 1.5m 내외이며, 목곽의 두께는 시상석의 범위로 보아 10cm 내외로 추정된다. 목관은 서벽에 붙여서 놓았는데 최대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95cm이다.

목관구역에서 금동제대관, 금동제삼엽문환두대도, 금동제허리띠가 출토되었다. 피장자는 키 160cm 내외의 남성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장자의 머리 쪽과 발치쪽, 그리고 부곽에서 42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로 볼 때 피장자는 위계가 높은 지역 수장층(首長層)으로 판단되었으며, 무덤의 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형산강 하구는 경주에서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주요 교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삼국시대 유적이 확인된 적이 없어 포항 북쪽의 흥해 지역이 이 일대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삼국시대 수장층의 상징인 입식(立飾)이 있는 금동제대관과 금동제삼엽문환두대도, 그리고 금동제허리띠를부장한 목곽묘가 포항 지역 최초로 발굴됨에 따라,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주요교통로 및 영일만의 포구를 관장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위치이므로, 이 유적을 통해 신라의 지방 지배방식이나 동해안으로 진출하면서 관계를 형성한 지역 수장층의 성격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실시된 도로 공사와 주변 사유물로 인해 매장주체부 이외 부분을 조사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였다. 유구 북쪽 단애면의 아래쪽은 소방도로와 근대 축대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지만, 이 주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지표 채집되었다. 이 일대는 삼국시대 무덤의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 18) 대련리 국내 최대 횡혈식 석실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포항 흥해읍 대련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연일JCT 건설구간에서 고분 30여 기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분 1호는 석실이 길이 587cm, 너비 425cm, 높이 203cm에 면적 24.9㎡로 국내에서 발견된 횡혈식 석실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임을 밝혀내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의 횡혈식 석실 고분은 냉수리 석실분으로 면적이 22.1㎡이었다.

1호 석실에서는 신라시대 토기인 고배, 단경호, 기와가 함께 출토됐고 10호와 16호 석실에서도 무덤 주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관고리와 귀고리, 금동제 등 3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덤 바닥에 세 갈래의 얇은 물길을 내고 그 위에 주먹만한 돌을 깔아 시상대(屍床臺)와 목관을 설치한 점 등을 미뤄 6세기 중엽~7세기 전엽까지의 가족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고분들은 경주지역에 횡혈식 묘제가 도입되는 삼국시대 초기의 경주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의 석실 구조와 계통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오어사사적》, 오어사, 건륭39(1774).  
朴時仁, 알타이系 始祖神話延烏郎細烏女, 《藝術論文集》5, 1966.  
蘇在英, 延烏細烏說話攷, 국어국문학 36, 1967.  
李寬逸, 延烏郎細烏女說話의 한 연구, 국어국문학 55~57, 1972.  
金昌鈞, <연오랑 세오녀 전설의 유래>, 《신흥》창간호, 1929.  
《영일현읍지》, 《일월항지》.《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황수영, <신라법광사 석탑기>, 백산학보 제8호, 1970.  
《포항시사》, 포항시. 1987.  
곽종철 가필 번역, 《고대연구》제2집, 1989.  
《영일군사》, 영일군, 1990.  
《한국고대사연구》3, 한국고대사연구회편, 지식산업사, 1990.  
김용우, <향토사 고대 부분에 대한 연구와 인식방법에 관한 견해>, 포항연구, 1990.  
《영일군, 냉수리, 흥곡리 일대 지표조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1.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경주문화재연구소, 1993.  
《흥해읍성리 고분군발굴조사약보》국립경주박물관, 영일군, 1994.  
《포항읍성리 고분군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5.  
《영남고고학》영남고고학회, 1996.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오천읍, 1996.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포항시, 사단법인동대해문화연구소, 1997.  
《포항흥해학천리유적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9.  
《포항일월지》, 포항시, 대구대학교박물관, 1999.

## 제5절 우리 고장 문화의 일본 전파

### 1. 연오랑 세오녀 신화

우리 고장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는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편에 있는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의 이야기이다.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모든 신화에 공통되는 속성이기도 하다. 특히 실존인물인 연오랑과 세오녀의 기록은 이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연오랑 세오녀 세력들의 이주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 1) 삼국유사의 원문

第八，阿達羅王卽位四年丁酉，東海濱，有延烏郎 細烏女，夫婦而居。一日延烏歸海採藻，忽有一巖[-云一魚]，負歸日本。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乃立爲王 [按日本帝記，前後無新羅人爲王者，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 細烏怪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其國人驚訝，奏獻於王，夫婦相會，立爲貴妃。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故致斯怪」王遣使求二人，延烏曰…「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以此祭天可矣」仍賜其綃。使人來奏，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藏其綃於御庫爲國寶，名其庫爲貴妃庫，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

(《三國遺事》권1 紀異)

#### 2) 풀이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즉위 4년 (정유 157)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가 부부로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가서 해조(海藻, 미역 종류)를 따고 있던 중, 갑자기 한 바위(혹은 한 고기라고도 한다)가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 나라 사람들이 연오를 보고 「이는 비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다. 「일본 제기(帝紀)를 살펴보면 전후에 신라 사람이 왕 된 이가 없으니, 이것은 변읍(邊邑)의 소왕이고, 진왕(眞王)은 아닐 것이다.」 세오는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괴이히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의 벗어놓은 신이 있음을 보고 또한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또한 그 것처럼 세오를 싣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

서 왕께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세오를 귀비(貴妃)로 삼았다. 이 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이 없어지니, 일관(日官)이 말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일본으로 가버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일어났 습니다」 왕은 사자(使者)를 일본에 보내어 두 사람을 찾았다. 연오는 말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니,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나 나의 비(妃)가 짝 고운 명주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거요」 이에 그 비단을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그런 후에 해와 달이 그 전과 같아졌다.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 하며, 하늘에 제사지낸 곳을 영일현(迎日縣) 또는 도기야(都祈野)라 했다.

이 신화는 우리 고장의 유구성과 특수성을 밝혀주는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신화나 설화는 기록이 없었던 시대 조상들의 삶의 흔적으로 당시의 역사적 진실이 이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남겨진 것이다. 따라서 이 신화는 그 시대 이 지방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밝혀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 신화 속에 나오는 내용을 실증적 방법을 동원하여 규명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어야 할 것이다.

### 3) 의의

#### (1) 신화의 상징성

‘연오랑 세오녀 신화’는 우리나라에서 문헌에 전하는 유일한 일월신화(日月神話)이다. 이 내용은 박인량(朴寅亮)이 지었다고 하는 《수이전(殊異傳)》 속에 실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수이전》은 전하지 않고, 대신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와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옮겨 실려 전해 온다. 이 신화에서 연오와 세오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이들 부부가 일월의 정기(精氣)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세오가 짝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그 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뒷받침을 더욱 강력히 해 준다. 또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대의 한 일 관계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이 신화는 영일현(迎日縣)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지명신화이다. 영일현은 현재의 포항시 권역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포항시 동해면에 있는 일월지(日月池)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 고장의 제천의식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고대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배하던 종교적 풍속이 있었는데, 동해에 접한 이 일대

에서 제천 의식의 하나로 태양제가 지내졌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신화에서 주인공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글자 ‘오(烏)’는 즉, 까마귀인 것이다. 까마귀는 우리에게 흉조, 죽음, 저승사자, 간신, 나쁜 무리 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화에서의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한다. 고대 중국의 신화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나는 태양 속에 사는 새이다. 한편 까마귀는 반포조(反哺鳥)라 하여 효성스러운 것의 대명사로도 알려져 있다.

연오는 태양 속에 까마귀가 산다는 “양오전설(陽鳥傳說)”의 변음으로 볼 수 있고, 세오도 “쇠오”, 즉 금오(金烏)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연오와 세오의 이동으로 일월이 빛을 잃었다가 세오의 비단 제사로 다시 광명을 회복하였다는 일월지(日月池)의 전설과 자취는 지금도 영일만에 남아 있다. 영일현의 영일(迎日), 즉 ‘해맞이’의 지명도 태양신화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서기》의 ‘천일창설화(天日槍說話)’도 같은 유의 광명의 신, 즉 태양신화의 이동 전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남해안과 일본의 이즈모 지방은 해로로 연결이 되며 역사적으로 문화의 전승로였음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한 문화를 따라 이동한 태양신화의 한 모습을 이 신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오랑 세오녀’ 신화는 일찍이 우리 민족이 일본 땅을 개척하여 통치자가 되고 내왕한 문화적 사실을 신화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이 광명의 신으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전인류의 공통성이다. 어느 민족이나 해와 달에 관한 이야기는 풍부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구비전승에는 이런 유의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으나 문헌에선 연오랑 세오녀의 신화가 거의 유일하다. 우리 선조들이라고 광명에 대한 동경, 신앙이 없을 리 없다. 더욱 농경생활을 주로 해 온 우리에게 태양이나 달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단지 뜻있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옮겨지지 못했을 뿐이다.

## (2) 시대적 배경

기록에 보이는 아달라왕(제8대)대는 신라의 국세가 두드러지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아달라 이사금의 관계 기록을 보면, 왕4년(157) 2월에 처음으로 감물(甘物), 마산(馬山) 2현을 설치하였다. 3월에는 장령진(長嶺鎭)으로 순행하여 군사를 위로하고 모든 장병들에게 군복을 하사하였다. 왕5년(158) 죽령을 개통하고, 왜인들이 수교하러 왔다. 왕12년(165) 아찬 길선이 모반하여 백제로 도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라가 백제의 성을 공격하였다. 왕13년(166) 정월 1일에 일식이 있었다.(이 일식은 2년, 12년, 17년에도 있었다.《동사강목》) 왕14년(167) 백제가 나라 서쪽의 2성을 습격하여 1천여 명을 사로잡아 가므로, 길찬 흥선에게 병사 2만을 주어 백제를 치게 하

고, 왕이 또 기병 8천을 거느리고 한수(충주 방향의 남한강)에 임하니, 백제가 그 노략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화해를 요청하였다. 왕17년(170)에는 시조묘를 중수하였다. 20년(173) 5월에는 왜국여왕, 비미호(卑彌乎)가 사신을 보내어 수교하였다는 일련의 기사를 보면 아달라왕대 보병 2만과 기병 8천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랄 만큼 국방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확장되는 국력을 가지고 백제를 공격하고 왜국과 수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비미호와의 수교 사실이 주목을 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차대왕에서 신대왕을 거쳐 고국천왕에 이르는 2세기 후반 국력을 튼튼히 하는 시기며, 백제는 아직 백제국이 성장하는 단계였으므로, 일시 신라의 국력이 팽창하는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국력이 팽창하는 시기 인근에 있는 소국들이 병합이 되면서 병합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도 그러한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일월지

### (3) 원문에 대한 분석

첫째,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그 곳의 왕과 왕비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이 고장 신라인의 일본이주의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 한국인의 일본이주와 문화 전파가 일본고대사의 기본 성격을 이루고 있음은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일본은 삼국시대에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의 나라

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은 일본조정에서 편찬한 일본기(日本記)(720)에 실려 전하고 있다. 오늘날 양심적인 일본인 학자들 중에서는 일본의 천왕가문과 기타의 오래된 성씨(姓氏)는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들의 후손이란 것을 확인하고 도래인(渡來人)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연오랑이 왜(倭)의 진짜 왕이 아니었더라도 변읍(邊邑)에서 왜인들에 의해 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사서의 신화나 설화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기본 구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우리 지역의 신라계 주민이 왜의 어느 지역에 진출하여 그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한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된다.

셋째, 동해구(東海口)인 영일만 지역은 신라로 하여금 일본 땅인 이즈모 근처나 북큐슈유우 지방에 진출하는 하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위지>·<왜인전(倭人傳)>에 나오는 히미코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신공왕후(神功王后)에 대해 일본의 고사기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아메노히보코(천일창)’의 후손으로 쓰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신공(神功)’은 ‘천일창(天日槍)’과 함께 한반도에서 건너간 여인으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연오랑 세오녀’의 신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왜국 비미호가 세오녀와 신공황후와 같은 인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렇다면 당시 일본으로 이주 또는 출륙한 지배국이 이 고장 출신의 신라계임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 (4) 기록에 보이는 관련 기사의 해석

① 《삼국사기》의 기록 아달라왕4년(157)에 감물현(甘勿縣)과 마산현(馬山縣)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감물현을 경주시의 감포(甘浦), 마산현은 포항시 동해면 마산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달라왕 때 이 지역으로 신라가 진출하였다는 것이 되고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와 잘 합치되어 이 고장 역사를 밝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후대에 저술된 것이나, 《동국여지승람》(1481)에서도 ‘연오랑과 세오녀’ 신화의 전승지를 ‘도기야(都祈野)’와 ‘일월지(日月地)’라고 표현, 오늘날의 동해면 도구동과 포항시 일월동으로 지적하고 있다.

③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의 위치 지정이 시기적으로도 같고, 장소도 거의 일치되고 있어, 사서들의 관계기사와 신화의 내용들이 서로 부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우리고장 문화의 일본 전파

### 1) 일본 이주와 관련된 추정

사료국은 1세기말과 2세기 초의 파시왕대에 이르면 우리 고장의 흥해 지역과 울산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8대 아달라왕(154~184)대에 이르면 더욱 강성하여 북쪽으로 조령 바로 북방의 확립령과 죽령을 개통하고 동쪽으로 감물(감포), 마산(동해면 마산) 2현을 설치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백제를 치고 왜국과 두차례 수교하였다. 당시 영역국가로 성장한 사료국은 근기국의 토산물(어류, 염, 방직물, 철기)이 필요하여 정복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때 많은 근기국 사람들이 북종하기를 거부하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고장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신라에 심복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나타나는 사서가 있다. 삼국사기의 내해왕 14년(209)과 동사강목의 내해왕 17년(212)의 기록에 「골포(骨浦)·칠포(漆浦, 지금의 흥해로 칠원(漆遠)이라고도 한다. 고사포(古史浦) 사람들이 가라(加羅)와 계림에 침입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한국문화의 일본전파는 선사시대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삼국시대의 고대문화전파는 일본 고대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 근기국 사람들도 고대문화 전파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2) 신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추적

연오랑과 세오녀는 단지 신화 속의 인물일까?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일본 오키섬에는 한반도인의 흔적이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일본 어디로 갔을까? 포항에서 출발할 경우 해류와 바람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시마네현 쪽에 닿게 된다. 시마네 현 본토에서 배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키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전해지는 <이마지 유래기>에 보면, 최초로 섬에 도착한 사람은 가라의 사료국에서 온 목염인 남녀라고 되어 있다. 사료국은 신라의 옛 이름. 그렇다면, 오키섬 주민들의 조상은 연오랑과 세오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반도에서 떠나간 일본의 신(神) 스사노오-시마네 현 이즈모 시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린다. 이즈모에 고대왕국을 건설했다는 신, 스사노오 미코토. 일본서기에 따르면, 스사노오는 일본 천황가의 시조인 아마테라스의 동생으로 행실이 나빠 고천원에서 신라국 소시모리로 쫓겨났다. 그리고 곧 바다를 건너 현재 이즈모 지역에 왕국을 세운다. 일본의 신이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왔다는 것이다. 신라에서 건너온 신 스사노오, 연오랑 세오녀가 일본의 신 스사노오가 된 것은 아닐까?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한반도에서 건너와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인 제철, 직조, 농사기술을 모두 전해주었으며 살아서는 그들의 왕이 되고 죽어서는 대왕신으로 추앙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연오랑 세오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3) 신화에 대한 연구

국내의 학자들이 이 신화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내놓은 주장들을 정리하면 이병도는 ‘일본 아마노하보꼬’ 이야기와 비교하였고, 이흥식은 ‘진한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의 한 지방에 지배가가 된 설화’, 정중환은 ‘아메노히보꼬 설화와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가 그 근본에 있어서의 공통점’, 장덕순은 ‘일본태양의 여신 천조대신(天祖大神)과의 어떤 관련설’을 주장하였다. 일본 쪽에서는 ‘신라인이 일본에 이주한 것을 말하는 설화’, ‘아마노하보꼬 설화의 관련성 부인’의 입장에 있어, 한·일 양국의 견해가 맞서 있다. 결국 설화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명식은 설화에 등장하는 연오는 일본에 건너가 세력을 형성하였던 인물이었으며, 《삼국유사》에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가 수록된 연유에 대하여 찬자가 설화를 통해 신라인의 우월성을 천명하고, 고려 말 몽고의 지배를 받고 일본원정에서도 실패한 민족의 자존심을 깨우치려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배용일은 우리나라 일월신화의 상징적 인물 연오랑 세오녀는 근기국의 제철과 직조의 유력한 실존 인물들로서 신라건국과 성장과정에서 선진기술과 태양숭배 일월신앙을 앞세워 새로운 신천지 일본 양곡(陽谷)의 땅을 개척한 사실을 역사·지리와 지명·민속적 배경을 종합 탐구하여 구명코자 하였다.

한편, 이 신화에 대한 연구의 방향도 기록상의 사실을 따라가는 고증학적인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 상용하는 언어학적인 비교 분석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확실하다고 보여 지는 실증적인 고고학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그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일천, 《日月郷誌》, 1962.  
 일연, 이민수역,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69.  
 이병도, 《원문번역주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69.  
 진단학회, 《韓國史》고대편, 19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8 삼국의 문화, 1998.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배용일,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 연구>《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월사상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포항시, 2007(《포항연구》40호, 2007).  
 이영희, 《무쇠를 가진자 권력을 잡다》, 현암사, 2009.

## 제6절 통일신라시대 우리고장

### 1. 행정구역

신라가 민족의 숙원인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676) 지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신문왕 때에는 9주 5소경의 지방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 자체는 이전의 제도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그 기본은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꿀 때 개칭된 것이다.

확대된 신라의 9주에는 총관(뒤에는 도독)·주 아래의 군현에는 태수와 현령이 각각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그리고 군에는 감찰 임무를 가진 외사정을 둠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조직을 이루었다.

5소경제 역시 통일 이전의 제도를 발전시킨 것인데, 옛 삼국의 위치를 고려하여 금관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을 설치하였다.

통일 전에는 2소경이 있었는데, 이를 더 확대시켜 5소경을 두었다. 5소경은 수도가 지나치게 동남쪽에 치우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지방 통치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방문화의 보급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 고장은 당시 9주중에서 양주(楊洲)의 의창군(義昌郡)소속으로 되었다. 신라 때 퇴화군으로 불리었던 것이 의창군으로 바뀌고 이 의창군은 다시 6고을의 현으로 나누어 소속이 되었다.

당시에 변화된 소속현들의 명칭은 비화현은 안강(안강)현으로, 지답현은 기립(장기)현으로, 동임읍(신을)현은 신광(신광)현으로, 근오지(오랑우)현은 임정(오천, 연일)현, 모혜(화계)현은 기계현(기계)으로, 읍즙벌국은 읍즙화현(안강에 합속)으로 바뀌었다. 이 중 안강현과 읍즙화현(현재는 모두 안강지역) 두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날 포함시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흥해읍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시됨에 따라 경덕왕 16년(757)에 실시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흥해읍이 신광현을 제치고 의창군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신광현을 비롯한 6개의 현을 거느리는 광역권의 군(郡)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흥해군의 초기 명칭인 퇴화군(退火郡)은 어느 시기에 설치되었으며, 미질부라는 지역 명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살펴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퇴화라는 명칭이나 흥해읍에 퇴화군이 설치된 시기는 지방관이 파견된 6세기 초 지증왕대이거나, 혹은 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퇴화”라는 군명(郡名)으로 이름 붙여진 것은 흥해지역의 중심읍락의 명칭이 그대로 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사회·경제활동

통일신라시대 지방의 농민들은 대략 10호 가량의 혈연 집단이 거주하는 자연 부락인 촌(村)에 편입되어 있었다. 촌은 말단 행정구역이었으며, 농민들은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하여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한편, 농업이나 목축업뿐만 아니라 수공업도 성하여 견직물, 마직물의 방직 기술과 금·은세공, 나전칠기들의 공예품 제조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 상업도 발달하여 경주에는 통일 이전에 설치된 동시 외에 서시, 남시가 설치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도 통일기 1군 6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면서 현 단위의 말단 행정구역에는 촌이 형성되고, 촌 단위에는 촌주가 있어 노동력과 생산력을 철저히 편제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수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노동력과 생산력이 철저히 편제되었음은 물론, 군사상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수의 산성들이 축조되고 이에 따른 노동력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 외 교통의 요지라는 특성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수로와 육로를 통하여 많은 물품이 집결되는 길목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현재 이 시기에 해당하는 고분들에서 직·간접으로 출토되는 유물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도 통일 후 경덕왕16년(757) 주, 군, 현의 정비에 따라 1군 6현 체제로 행정구역이 정비되었다. 지방의 농민들은 대략 10호 가량의 혈연 집단이 거주하는 자연 촌락인 촌에 편입되어 있었다. 우리 고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촌은 말단 행정구역이었으며, 농민들은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하여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통일 후에는 노동력과 생산지원이 보다 철저히 편제되어 관리되었다. 우리 고장의 촌주들도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남녀별, 연령별의 정확한 인구와 소, 말 등의 가축,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수를 3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었을 것이다. 평민 이외에 향, 부곡 민 및 노비의 노동력도 철저히 동원되었다.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시에 출토된 유물 등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철제농기구들이었다. 낫, 쇠스랑, 괭이 등의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

고 농산물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되었다. 농업이나 목축업뿐만 아니라 수공업도 성하여 견직물, 마직물의 방직기술과 금, 은세공 등의 공예품 제조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우리 고장은 길게 연이은 해안과 영일만이라는 천혜적 환경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발굴조사 시에 꾸준히 출토되는 어업관계의 유물들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고장 바다를 통과하는 해류는 어종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어획량도 많았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우리 고장에도 향, 소, 부곡 민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정치, 행정과 영역의 변화 과정으로 보았을 때 향, 소, 부곡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질 좋은 점토, 규조토, 토철 등을 이용하여 수공업품 생산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고 다른 곳과도 교역을 하였을 것이다. 이미 통일신라에 들어오면 상업도 발달하여 경주에는 통일 이전에 설치된 동시 이외에 서시, 남시가 설치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우리 고장은 경주에서 가까운 지방이어서 상업발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다.

이와 같은 발전에 의하여 이 지역에도 일찍부터 교통로가 편리하게 열리고 생산물들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해로를 통한 타 지역이나 외국과의 무역은 고대국가시대나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통일신라에 들어와서는 대양을 항해하는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대외 발전은 우리고장 사람들에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 바다가 되는 촌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 동해의 해상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생활은 통일을 전후하여 보다 더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였던 지배층들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수장급 무덤에서 출토되는 반지, 목걸이들의 금제장식과 다면옥, 마옥 등의 옥장식들은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것이었다. 통일신라시대 우리고장의 마을들은 군소재지의 관리들이 파견되어 지방중심지를 이루고 각 현에는 촌주들이 있어서 촌들을 관할하면서 마을을 구성하였는데 크게 나누어 농촌, 어촌, 산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고 각 마을마다 생산물도 특색이 있었을 것이다.

### 3. 신라하대 이 고장의 호족세력

무열왕 직계 자손들의 전제왕권은, 경덕왕 때에 오면서 진골 귀족세력의 반발을 받아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던 김유신계 후손들도 몰락하여 갔다. 그런 가운데 경덕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혜공왕 때에

다시 그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되었다. 아울러 해공왕 때에 와서는 귀족들의 반란이 잇따라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서 왕이 피살되면서 마침내 전제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대 약 150여 년간 신라 조정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어 왕이 자주 교체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 지방에서도 호족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지방의 호족들은 경제적으로 수취를 많이 당하고, 조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곳에서부터 먼저 일어난 것 같으며, 국방 요충지였던 곳에서는 군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호족들이 성장하였다. 이후 신라 하대 하호는 호족들에 의하여 움직여 갔다. 호족들은 군 단위의 지방을 다스리면서 성주나 장군으로 자처하였다. 또 해상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면서 군사적 기반까지 마련한 군진세력도 등장하였다. 우리 지방의 호족들도 성주로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군사적 세력 기반을 갖춘 사람도 있었다.

신라 하대의 혼란은 지방 세력이 대두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들은 점차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멀어져, 자신들의 기반을 발판으로 지방 세력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먼저 지방 세력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 기근과 조세 등에 시달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농민과 초적, 적고적 등을 규합한 세력(기휼, 양길, 궁예 등)

② 토착적인 기반을 가진 촌주 등 토호 또는 중앙에서 사천, 추방하거나 정치적 열세에 밀려나 왕실에 반기를 든 세력(홍술, 선필, 박수경, 순식 등)

③ 대외무역을 통하여 해상 경제력을 가진 세력(장보고, 왕봉규, 왕건 등)

④ 비장으로서 지방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세력(견훤) 한편, 전란으로 인한 침입과, 약탈, 도적의 발호 등으로 토착세력들이 자기 고장의 수호나 신변보호 등 생존권을 위하여 자생적 입장에서 지역 주민을 규합한 세력(공적, 이재, 이충언)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력의 등장은 신라 하대 골품제도의 동요로 왕위 쟁탈전이 격화되어 왕권이 미약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자 서서히 나타나서, 9~10세기에 들어 6두품 출신의 반신라적 움직임과 천재지변이 극심하던 시대적 혼란에 편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세력들은 군사, 행정, 경제력을 모두 갖추고 자신의 세력권내에서 백성을 지배하는 등,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신라왕실에 반기를 든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또 이들은 서로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입장을 취하여 시시각각으로 세력 기반이 변하였다. 이들 호족 가운데는 병부, 호부, 참부 등 독자적 통치기구를 갖추고 있었던 강력한 세력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앙지방(충주)을 거점으로 충주 유씨(유권열, 유궁열)의 세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선종의 승려와 결탁, 그들을 후원하였다. 또 6두품 지식층과 제휴, 학교도 설치, 운영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이러

한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은 곧 호족세력이 가진 경제력,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었는데, 왕실로서는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이 세력들이 성장, 자립함으로써 정치, 사회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역사의 무대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했고, 그 결과 나말의 후삼국 성립과 신라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려사에는 태조12년(930)에 북미질부성의 성주 ‘훤달’이 남미질부성의 성주와 함께 투항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신라멸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성주 훤달이라는 사람은 신라의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자 미질부성을 근거로 성주라 자칭하면서 이 고장 사람들을 지배하였던 호족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고장에서는 사서(史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라하대에서 고려 초기까지 활약하였던 호족들의 활동에 얽힌 것으로 보이는 설화들이 있으며 중심지가 되었던 지명이나 성(城)의 명칭 등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추정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4. 불교 유적

### 1) 법광사

법광사는 진평왕대에 건립되어 통일신라에 들어와 융성하게 되었다. 현재 이 법광사의 정확한 규모와 시설을 알 수 없지만, 그간에 발견된 탑지석에 의하여 법광사의 내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법광사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절터 서남쪽 언덕위에 있는 석탑 때문이다. 1968년 8월 이 탑이 도굴된 후 탑 속에 간직되었던, 두 개의 조그만 탑지석(塔誌石)이 발견됐다. 이 두 개의 탑지석으로 법광사의 자세한 내력이 밝혀졌는데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신라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길이 10.8cm, 폭4cm, 두께1.5cm 규모의 질이 부드러운 석회석의 석재로 만들어졌는데, 대좌와 옥개까지 갖춘 돌비석형이다. 양측면과 앞뒤면 글자의 크기가 5mm정도의 글씨들이 음각되어 있고, 양측면에 각각 2행과 앞뒤면에 각각 3행식의 기문이 새겨져 있는데 법광사 석탑기(法廣寺 石塔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4면을 돌면서 기록을 하였다.

탑지의 내용은 “태화(太和)2년(신라 제42대 흥덕왕3년, 828) 7월에 향조사(香照師)와 원적니(圓寂尼)라는 두 남녀 승려가 재산을 희사하여 탑을 세웠는데, 회창6년(신라 제46대 문성왕8년, 846) 9월에 당초자리에서 옮겨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성덕대왕은 ‘김균정’으로서, 탑을 옮겨 지을 때, 왕위에 있던 제46대 문성왕(839~857)의 할아버지다.

흥덕왕(826~836)이 죽은 뒤 신라 왕실은 왕위를 놓고, 왕족 간에 골육상쟁이 벌어

졌을 때 김균정은 제44대 민애왕(838~839)일파에 피살된 인물이다. 그러나 1년 만에 그의 아들이 민애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제45대 신무왕이다. 신무왕이 즉위(839)하자 아버지를 성덕왕으로 추존하였다.

두 번째 탐지석은 ‘건룡·강희’명 탐지인데 내용은 “건룡12년(영조23년, 1747) 정묘 2월에 주사 ‘명옥’, ‘담학’이 중수하였다는 것과 강희37년(숙종24년 1698) 술인년 7월에 ‘각대언’이 절을 다시 중수 하였다.”라는 기록이다.

두 탐지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현재 있는 탑은 통일신라 후대에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현재 석탑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석가불사리탑중수비(조선 영조15년, 1739)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었지만, 도굴꾼에 의해 두 지석이 발견됨으로 확인되었다. 중수비에는 탑의 “사리장치”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신라 시대 말기의 탐지의 기록과 같이 사리 22과가 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보경사

진평왕대에 건립되었던 보경사는 신라통일기인 제33대 성덕왕22년(723) 도인 각인(覺仁)과 문원(文遠)이 서로 의논하기를 “절이 있는데 탑이 없을 수 없다”하여 발원하고 시주를 얻어 금당 앞에 5층탑을 조성하여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금당탐기」에 의하면 현종 계해 3월 27일이라고 한 바, 우리나라 왕조에 나오는 현종은 고려시대의 현종(1010~1031 재위), 조선 제18대 현종(1660~1674)뿐이므로 신라와 동시대의 당나라 현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당탐기에 현종 계해에 탑을 세우고, 다음 당 현종 천보(天步) 4년(745)에 절을 중창했다고 하였으므로 현종 계해는 곧 개원(開元) 11년(723)으로서 이때 탑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라 제35대 경덕왕4년(745)에 철민(哲敏)화상이 중창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사실로서 보경사는 통일신라에 와서도 꾸준히 중창, 발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3) 고석사

선덕여왕대에 창건한 고석사는 통일된 신라에 와서도 꾸준히 발전되고 있었다.

고석사 법당인 보광전은 네모난 큰 바위의 한 면에 석굴 형식으로 불감(佛龕·불상을 모셔 두는 방)을 조성한 뒤 부처님을 돈을새김(양각)해 모셨다. 그런데 이 불상과 바위는 석고가 두껍게 입혀져 있었다. 사찰기록에 따르면 1923년 무렵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불상을 성형하기 위해 석고를 발랐다고 한다.

2008년 주지로 부임한 종범스님이 최근 석고를 뺐더니 그 속에서 얼굴은 등글넓적하고 이목구비에서 힘이 느껴지는 새로운 불상이 나타났다. 높이 222cm, 무릎 폭 95cm 크기의 불상은 특이하게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

수(불교미술사)는 “이 불상이 미래불인 미륵부처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미륵불의상(彌勒佛倚像)”이라고 하였다. 8세기 사실적 양식의 특징이 잘 남아 있고 766년 제작된 석남사 비로자나불과 비슷해서 8세기 중·후반 작품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미륵불의상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미륵불의상은 중국에서 8~9세기에 크게 유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고(古)신라(경주 삼화령 미륵세존)와 고려시대(법주사 마애미륵불)에 만들어진 것만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 신라 대에 고석사가 번창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삼국사기》, 《고려사》.
- 《포항시사》, 1987.
- 황수영, <법광사 석탑기>, 백산학보 제8집, 1970.
- 《보경사 사적지》, 보경사, 1980.
- 《한국 고대사 연구》3, 지식산업사, 1990.